

# ASAN REPORT

---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 후 2년 무엇이, 어떻게, 왜 변했나

장지향, 성일광, 강충구

2026년 1월



Asan Report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 후 2년 무엇이, 어떻게, 왜 변했나

장지향, 성일광, 강충구

2026년 1월



##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 저자

### 장지향

장지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자 지역연구센터 센터장이다. 외교부 정책자문 위원(2012~2018년)을 지냈고, 현재 산업부, 법무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동 정치경제, 정치 이슬람, 비교 민주주의와 독재, 극단주의 테러와 안보,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대표 저서로 중동정치를 비교 분석한 «최소한의 중동 수업» (시공사 2023), 클레멘트 헨리(Clement Henry)와 공편한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Palgrave Macmillan 2013), 논문으로 “트럼프 2기 신중동 전략과 중동 안보구도의 재편” (아산 이슈브리프 2025),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 전망』 (아산리포트 2025), “Disaggregated ISIS and the New Normal of Terrorism” (Asan Issue Brief 2016), “Islamic Funda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8)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파와즈 게르게스(Fawaz Gerges)의 «지하디스트의 여정» (아산정책연구원 2011)이 있다.

### 성일광

성일광 교수는 중동지역 전문가로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외교부 아중동국 정책자문위원과 한국 이스라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에서 중동학 박사 학위를, 하브리 대학교에서 중동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실 책임연구원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조사방법론, 서베이 자료 분석, 양적 연구방법 등으로 사회과학분야 측정 문제, 여론과 그 동학에 관심이 있다. 다수의 서베이 보고서를 출판했으며, 『한국언론학보』, 『평화연구』 등 학술지에 연구논문(공저)을 게재했다.

# 목차

요약	06
I. 들어가며	09
II.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학 구도 변화	11
1. 이스라엘 안보 독트린의 변화: 예방적 선제 공격 전략 등장	11
2. 이스라엘의 도전과 기회	15
3. 하마스의 위기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기회	20
III.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후 인식 변화	25
1. 이스라엘	25
2. 팔레스타인	33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여론 변화의 함의	40
IV.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란·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	43
1. 이란: 대리조직 공세의 균열과 핵개발 전략의 한계	43
2. 사우디아라비아: 트럼프 2기 정부 밀착으로 데탕트 주도국 부상	50
3. 튀르키예: 이슬람권 영향력 확대 전략과 이에 따른 전략적 비용 증가	56
V.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동 전략 변화	63
1. 바이든 정부: 휴전 반대에서 평화 구상으로	63
2. 트럼프 2기 정부: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주도의 질서 재편과 대이란 공세	65
VI. 나가며: 한국의 대중동 정책 제언	71

## 그림

[그림 1] 2025년 6월 ‘12일 전쟁’과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	14
[그림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시기 이스라엘 시민의 반네타냐후 시위	17
[그림 3] 2024년 3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새 내각 출범	23
[그림 4]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에 대한 시기별 인식	29
[그림 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가자지구 사망자 수	31
[그림 6] 하마스 기습에 대한 서안과 가자지구 여론 변화	38
[그림 7] 2025년 6월 ‘12일 전쟁’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48
[그림 8] 202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 주도로 열린 팔레스타인 문제 유엔 회의	55
[그림 9] 트럼프 대통령과 2025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68

## 요약

2023년 10월 7일, 친이란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납치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다.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제2 독립전쟁’을 선포하며 하마스 궤멸과 인질 귀환을 목표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쳤다.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하며, 가자지구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했다. 전쟁 발발 이후 2년여가 지난 2025년 10월 기준,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는 6만7천 명을 넘어섰고, 주민 90% 이상이 실향민이 됐다.

2025년 10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안’을 전격 발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포함한 1단계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 철군, 가자 재건 등 후속 단계 협상이 남아 있으나, 단기적 긴장 완화 효과는 분명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가자·서안지구)은 물론 중동 지역 전체의 역학 구도 전반과 안보 질서를 뒤흔들었고 역내 주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재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 보고서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대내외 권력 구도와 여론 변화, 그리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중동 주요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재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전후 중동 질서 변화가 한국의 대중동 정책에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 이스라엘은 2023년 하마스 기습 이후 기존의 ‘잔디깎기’식 갈등 통제·관리 전략을 폐기하고 갈등 원천을 제거하는 예방적 선제 공격 전략을 채택했다. 신안보 전략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핵심 지도부를 제거하고, 하부조직 토대를 타격하면서 이란 대리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해체했다. 더불어 이란의 전략 자산을 무력화하기 위해 방공망·정보·지휘 체계와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파괴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적 선제 억지 모델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초기 ‘결집효과’가 나타났다. 하마스 기습이라는 외부 위협으로 인해 국내 정치 분열이 잠시 봉합됐고, 안보 위기에 대한 군사 대응에 초당적 지지가 일시적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장기화된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이스라엘 내 전쟁 목표는 하마스 궤멸에서 인질 귀환과 휴전 합의로 바뀌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책임

론과 인질 협상 지연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했고, 전후 조기 총선 가능성에 줄곧 제기됐다.

- 하마스는 2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으로 지도부 손실과 내부 분열을 겪으며 조직 자체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 속에서 하마스 책임론이 확산됐고, 2025년 유엔 회의와 아랍연맹의 결의안에서 하마스의 가자지구 행정 배제가 공식화되면서 대표성도 크게 약화됐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암바스의 지도부 쇄신 노력과 개혁 추진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대표할 합법 정부로 재부상할 기회를 얻었다.
- 팔레스타인(서안과 가자지구)에서도 전쟁 발발 직후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전례 없는 가자지구 내 피해 규모와 전쟁으로 인한 생활고가 겹치며 감소세를 보였다. 장기화한 전쟁의 피해 누적, 심각한 경제난과 부패로 하마스 통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하마스 지지는 전쟁 전 수준으로 회귀했고, 하마스는 통치 정당성 위기에 처했다.
- 이란은 지난 20년간 ‘저항의 축’과 미사일 전력을 결합해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예방적 선제 공격으로 대리조직 네트워크가 와해되자 내부 강경파가 주도권을 강화해 핵개발 전략을 앞세웠다. 이에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가 심각하게 훼손되며 시아파 종주국으로서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 그 결과 경제 위기와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핵협상 재개를 둘러싼 엘리트 분열과 정권 정당성 논쟁이 불거지면서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최대의 전략적 기로에 직면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국교 정상화가 추진되던 데탕트 국면을 하마스가 위협으로 인식해 기습공격을 단행하면서 촉발됐다. 전쟁 기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스라엘·아랍 간 통합 방위체계와 대이란 억제 구도를 활용하는 한편,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된 후에는 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이끌어 수니파 대표국의 입지를 강화했다. UAE·바레인·모로코 등 아브라함 협정 체결국은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과의 공식 관계를 철회하지 않고 조용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는 미국과 경제·안보·기술 협력 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 회의를 주도해 유럽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이 행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2기 체제하에서 새 중동 데탕트의 조정국이자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는 기반이 됐다.

- 튀르키예는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슬람권 내 영향력 강화를 시도했으나,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약화시켰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친하마스 노선을 더욱 선명화했고, 이 과정에서 아랍 주요국 및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입장 차이도 부각됐다. 이러한 대외 노선은 국내 정치위기 속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 전쟁’으로 이란·하마스 축이 약화되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주도하는 이스라엘-걸프 협력 구도가 부상하자, 튀르키예는 전략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통치 배제 원칙에 지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 미국의 전쟁 대응은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2기 정부로 뚜렷이 구분된다. 전쟁 초기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하마스 궤멸을 지지하며 유엔 안보리의 휴전 촉구 결의안에 세 차례 반대했다. 그러나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국내외 여론이 악화하자 즉각 휴전과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한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압박하면서 정책을 급선회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반면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경제 우선주의’를 기치로 걸프 산유국과의 대규모 투자·무기·첨단기술 거래를 연속적으로 성사시키고,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략적 밀착을 기반으로 중동 질서 재편에 나섰다. 2025년 6월 ‘12일 전쟁’에서는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을 승인해 이란의 역내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어 10월에는 즉각 휴전,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 재건을 포함하는 ‘가자지구 평화안’을 발표해 단기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
-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위기 관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반면, 미국은 군사 억지와 외교 조율 능력을 재확인했다. 이에 걸프 산유국들은 미국 안보 우산을 유지하되, 이란 약화 국면을 활용해 자주국방 역량을 병행 및 강화하는 전략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며, 미국 역시 중동 개입 축소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방산·에너지·기술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으며, 한-GCC FTA와 한-UAE CEPA는 방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 주도의 평화안 원칙에 맞춰 가자지구 전후 재건 및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단순 경제 협력을 넘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I. 들어가며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의 친이란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하마스는 당시 빠르게 조성되고 있던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구도를 흔들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군사 대응을 단행했고 전쟁은 가자지구를 넘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지에서 이란이 육성한 무장 대리조직 연합인 ‘저항의 축’의 동시 공격으로 확전됐다. 이스라엘은 ‘제2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하마스 궤멸과 인질 구출을 목표로 대규모 지상전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가자지구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했다.

전쟁은 곧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을 넘어 이스라엘-이란 대리조직-이란 간의 각종 무력 충돌로 비화했다. 전쟁 당사국과 역내 주요 행위자, 국제사회는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였고, 중동 정세는 심각한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재편됐다. 이 전쟁은 단기적 위기 관리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면서 중동 전반의 지정학적 균형을 봉괴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연쇄 작전으로 하마스·헤즈볼라·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조직 연대는 전투력과 지휘 체계가 약화됐고, 이란의 방공망·핵시설·미사일 전력도 상당 부분 파괴됐다. 친이란 성향의 시리아 정권은 통치 기반이 흔들렸으며, 이란은 시아파 맹주라는 상징성과 전략적 억지력이 낮아졌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엘리트 내 갈등과 민심 이반이 심화된 데다 핵합의 위반 조치에 따른 유엔 제재가 복원되면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걸프 국가와의 밀착 외교와 이란 압박 전략을 병행하며 이스라엘·걸프 산유국이 주도하는 새 중동 질서를 부상시켰다. 반면, 중국은 이스라엘-이란 전쟁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며 미국의 압도적 하드 파워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정부는 억지력 기반의 거래외교를 통해 2025년 10월 ‘가자지구 20개 조항 평화안’을 발표했고, 휴전·인질 석방·하마스 무장해제·이스라엘 철군·가자 재건을 위한 다국적 지원 등 현실적 조치를 포함시켜 단기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 다만, 팔레스타인 주권 보장과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안보 중심 접근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 평화안은 장기 교착을 완화하고 아랍·이슬람권 및 유럽의 지

지를 확보하며, 이란 약화 국면 속에서 이스라엘-결프 축 중심의 새로운 지역 안보 구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본 보고서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튜르키예, 미국 등 주요 행위자의 대내외 전략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전쟁 장기화 속에서 나타난 피로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부 정치 균열의 재부상, 여론의 구조적 변화가 갖는 함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동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선택지를 제시한다.

## II.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학 구도 변화

### 1. 이스라엘 안보 독트린의 변화: 예방적 선제 공격 전략 등장

2023년 이란이 지원하는 급진 이슬람주의 무장조직인 하마스의 공격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안보 독트린과 외교정책은 뚜렷하게 강경화됐다. 새 독트린의 핵심은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의 군사역량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이다. 하마스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스라엘을 비롯해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다수 국가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안보 독트린은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 초대 이스라엘 총리가 정립한 세 가지 원칙, 즉 억지(deterrence), 조기경보(warning), 선제 공격(preemption)을 통한 결정적 승리(decisive victory)에 기초해 왔다. 시간이 흐르며 경험 이 축적되자 ‘단기간 군사작전(Campaign Between Wars, CBW)’처럼 적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요소가 보완됐다.<sup>1</sup> 그러나 2023년의 공격과 그 이후의 이란 측 반격은 CBW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스라엘 안보 독트린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적 승리는 적에게 전쟁 수행 능력이나 의지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규군과의 전면전에서 결정적 승리는 비교적 분명하게 측정되지만, 분산된 비국가 조직에 대해서는 달성 및 확인이 어렵다. 둘째, 효과적 억지는 상대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공격 의지를 꺾는 것이다. 셋째, 조기경보는 적의 군사적 기도와 역학 변화를 조기에 포착해 예상치 못한 공격을 예방하거나 무력화하는 역할을 한다.

1. Yaakov Amidror, “Israel’s National Security Doctrine,” Jerusalem Institute for Strategy and Security (JISS) (July 18, 2021), <https://jiss.org.il/en/amidror-israels-national-security-doctrine/>; Kim Bar, “Aspects of the Formation of Israel’s National Security Doctrine,” Dado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Military Studies, 2024, <https://www.idf.il/en/mini-sites/dado-center/research/aspects-of-the-formation-of-israel-s-national-security-doctrine-major-kim-bar/>.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안보 독트린은 전통적 억지 전략에서 적의 전력 기반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예방적 선제 공격 중심 전략으로 전환됐다. 기존 억지가 보복 위협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다면, 새 전략은 지휘부와 군사 인프라를 직접 제거하여 위협 자체를 소멸시키는 선제 억지(preemptive deterrence) 방식을 지향했다.<sup>2</sup>

즉, 기존 독트린의 핵심은 최소한의 전선에서 빠른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가자지구와 레바논 접경지대를 장악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소멸과 이슬람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며 반복적으로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주기적 공습으로 보복하며 무기고를 순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른바 ‘잔디깎기’ 전략으로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강도와 시기만은 이스라엘이 조절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이러한 갈등 관리 전략을 폐기하고, 조직의 재건 능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철의 검’ 작전을 실시해 하마스의 지휘부·무기고·지하터널망을 집중적으로 파괴했고,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인 ‘라벤더’를 활용해 약 3만 7천 명의 조직원을 식별·타격했다.<sup>3</sup>

2024년 4월 이스라엘은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인근 시설을 공격해 시리아 주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하산 마흐다비(Hassan Mahdavi)를 사살했고, 7월에는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를 테헤란 인근에서 제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새로운 질서’ 작전을 통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 140곳을 공격해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와 핵심 간부진을 제거했다. 직후 모사드는 헤즈볼라 대원의 무선 호출기 수천 대를 동시에 폭발시키는 작전을 병행했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계속된 대시리아 작전 역시 과도정부가 적대적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치였다. 2025년 6월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차단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해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주도했다. 이처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전략은 ‘갈등

2. Mohsen Mohammad Saleh, “Political Analysis: The Shifts in Israeli Security Doctrine and Their Regional Implications,” Al-Zaytouna Centre for Studies & Consultations (June 27, 2025), <https://eng.alzaytouna.net/2025/06/27/political-analysis-the-shifts-in-israeli-security-doctrine-and-their-regional-implications/>.

3. 장지향, “‘잔디깎기’ 전략 버린 이스라엘,” 매일경제신문, 2025년 7월 23일,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374711>.

의 통제’에서 ‘갈등의 제거’로 변화했다.

이스라엘은 다수 전선에서 약 2년에 걸친 전쟁을 수행했다. 하마스에 대한 충돌은 ‘저항의 축’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면서 가자지구를 넘어 지역 전쟁으로 확산됐다. 2000년대 이후 거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구상한 대로,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 하마스를 비롯해 해즈볼라·후티 반군·이라크 및 시리아 시아파 민병대·서안지구의 무장조직을 연계하는 전략적 포위망을 구축해왔다.<sup>4</sup>

하마스의 공격 직후 해즈볼라는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타격해 두 번째 전선을 형성했다. 후티 반군은 홍해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며 남부 이스라엘로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는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목표물도 타격했고, 이란은 서안지구 무장조직에 무기와 재정을 지원해 내부 불안정을 유도했다. 이로써 전쟁은 직접적인 전투, 주변 무장세력의 압박, 내부 교란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됐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의 통합 방공·정보 지원에 크게 의존했다. 특히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국, 유럽, 아랍 국가 간의 통합 방공망 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쟁의 확전 방지를 목표로 이스라엘 방공망을 지원했다. 이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연계가 지역 질서를 흔들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예방적 선제 공격 독트린은 이란이 구축해온 대리조직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졌다. 2024년 9월 해즈볼라가 군사적으로 제압되기까지 이 전환은 지속적으로 적용됐다.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은 오랫동안 레바논의 해즈볼라로 무기를 전달하는 육상 통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란은 레바논·이라크·시리아·예멘과 같은 실패 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 역량 및 정당성 약화를 활용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 정체성이 종파 정체성보다 약하며, 대규모 시아파 인구 기반은 이란이 현지에 시아파 민병대를 창설·배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민병대 구성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이지만, 실질적 충성은 이란

---

4. Alan Pino, “Iran Has a Strategy for Israel. Now Israel Needs One for Iran,” *Atlantic Council* (October 2,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iransource/iran-israel-strategy/>.

에 향했고, 이로써 ‘저항의 축’이 형성됐다.<sup>5</sup>

[그림 1] 2025년 6월 ‘12일 전쟁’과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



출처: 연합뉴스.

‘저항의 축’의 핵심 조직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였으며,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가 그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조직도 편입됐고, 하마스가 대표적 사례였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안보 독트린에 따라 이 대리조직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했다. 먼저 하마스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뒤, 헤즈볼라의 군사력을 무력화했고, 이는 헤즈볼라에 의존한 알아사드 정권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졌다. 이후 작전 범위는 이란 본토로 확장됐다. 2025년 6월 ‘일어서는 사자’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모사드 정보망을 바탕으로 공군 및 사이버 전력을 활용해 이란군 지휘부와 핵개발 과학자를 제거하고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파

---

5. Hamidreza Azizi and Julien Barnes-Dacey, “Beyond Proxies: Iran’s Deeper Strategy in Syria and Leban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ne 5, 2024), <https://ecfr.eu/publication/beyond-proxies-irans-deeper-strategy-in-syria-and-lebanon/>.

괴했다. 이란과 그 대리조직의 반격은 제한적이었으며 전쟁은 12일 만에 종료됐다.

미국의 병커버스터 및 스텔스기 지원 공습은 이란의 핵개발 일정을 최대 2년가량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sup>6</sup> 이 과정에서 미국은 ‘탈중동’ 기조 선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전히 군사력 투사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2025년 6월 전쟁에서 이란과 대리조직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고, 이란이 유지해온 ‘잠재적 핵 보유국’ 지위는 억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역내 군사적 지위는 크게 약화됐으며, 이란 군사력에 대한 공포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됐다.

## 2. 이스라엘의 도전과 기회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이후 이스라엘은 역내 힘의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이란의 영향력은 약화됐으며,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다. 특히 혜즈볼라의 전력 손실은 이스라엘 북부 국경 안정화 가능성을 높였고, 시리아 신정부와의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또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로 부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도 잠재적 옵션이지만,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공식 종결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아흐마드 알샤라(Ahmed al-Sharaa) 시리아 정권이 흔들릴 경우 시리아는 레바논과 유사한 무장 세력의 경쟁 구도가 재현될 수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요르단·이집트 간 평화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시리아를 기점으로 무슬림 형제단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급진 수니파 층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역시 여전히 서안과 가자지구,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스파이 모집과 정보망 침투를 시도하고 있으며, 핵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sup>7</sup>

6. Phil Stewart and Idrees Ali, “Iranian Nuclear Program Degraded by Up to Two Years, Pentagon Says,” *Reuters* (July 3, 202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ian-nuclear-program-degraded-by-up-two-years-pentagon-says-2025-07-02/>.

7. “How Iran Sought to Recruit Spies in Israel,” *The Guardian* (July 6,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06/how-iran-sought-to-recruit-spies-in-israel>; “Spies Like Us: Inside the Region’s Shadow Wars,” *Al Jazeera* (November 16,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1/16/spies-like-us-inside-the-regions-shadow-wars>.

이란의 강경 보수파 지배층은 핵 프로그램이 민간 목적임을 주장하고, 최고 지도자의 ‘파트 와’(이슬람법 샤리아에 따른 공식적 법적 견해)가 핵무기 생산과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테헤란 내부 발언은 이란이 ‘잠재적 핵 보유국’ 지위를 넘어, 핵무장 전환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8</sup> 이에 이스라엘은 핵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모든 전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 핵합의가 체결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하여 협상에 직접 관여하려 할 것이며, 핵 연구기관 사찰, 우라늄 농축 수준 제한, 고급 원심분리기 해체, 엄격한 검증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 제한, 미사일 재고 상한, 비확산 조치 준수 또한 핵심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

반면 핵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정보·외교 공조를 유지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라늄 농축 90%를 군사 행동의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금지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미국의 직접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고농축 우라늄 생산, 핵실험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 목표는 핵시설을 신속히 파괴하여 핵무기 개발 완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저항의 축’과의 다중 전쟁 이후 이란이 대리세력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라크는 이란의 핵심 완충지대이자 이스라엘에 대한 장거리 공격의 기반 지역으로, 헤즈볼라·하마스·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아파 영향력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미국의 이라크 주둔은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며, 이라크 내 이란 영향력 제한에 기여한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바브 알-만다브 해협(Bab al-Mandab Strait)을 통해 해상 전략 거점을 확보하고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이란 대리세력과 달리 독자성이 강해 이란 통제가 제한적이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하여 걸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sup>9</sup>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통해 북부 지역 안정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8. Khosro Sayeh Isfahani, “The Nuclear Fatwa That Wasn’t—How Iran Sold the World a False Narrative,” *Atlantic Council* (May 9,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iran-source/iran-nuclear-weapons-fatwa-khamenei/>.

9. Danny Citrinowicz, “The Solution to the Houthi Problem Is Not in Iran,” *INSS Insight* No. 1930,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January 1, 2025), <https://www.inss.org.il/publication/houthi-problem/>.

1월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셉 아운(Joseph Aoun)이 이끄는 레바논 정부는 2025년 이내로 헤즈볼라 비무장화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속도는 더디다. 잔존 세력은 남부 레바논에서 군사·사회 네트워크 재건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 이스라엘과 국제사회는 육상·해상·공중 통제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무기 금수 조치에 협력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sup>10</sup>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레바논과의 평화 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현 단계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신 이스라엘은 서방 및 걸프 국가의 대레바논 재건 지원을 유도해 헤즈볼라를 통한 이란의 레바논 내 영향력을 상쇄하고, 친서방 성향의 아운 대통령의 정치 개혁 노력을 지원하며,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분쟁 해결을 통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시기 이스라엘 시민의 반네타나후 시위



출처: 연합뉴스.

또한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저항의 축’에서 분리시켜 이란의 무기 공급 경로를 약화시키려

10. Liz Sly, “The Rise, Fall and Contested Future of Hizbulah,” *The Economist* (May 16, 2025), <https://www.economist.com/1843/2025/05/16/the-rise-fall-and-contested-future-of-hizbulah>.

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의 내부 불안정은 이스라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국경 인근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조직에 대한 군사 개입 필요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완충지대를 관리하고, 쿠르드계·드루즈계 등 시리아 내 소수집단과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튜르키예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다중 전선에서 이란 및 이란 대리조직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국내 정치는 오히려 심각한 분열에 직면했다.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인질 가족들의 분노는 누적됐고, 사회 전반에 전쟁 피로가 심화됐다.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 세력은 인질 가족과 야권이며,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 보다 하마스의 완전한 궤멸을 우선시함으로써 인질의 희생을 사실상 감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극우 연정 파트너의 이탈 위협 때문이며, 이는 결국 총리직 유지를 위해 국민 생명과 국가 이익까지 후순위로 두는 행위라고 주장했다.<sup>11</sup>

전쟁 이전부터 중도 엘리트와 시민사회는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세력이 포퓰리즘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법치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기·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최초의 현직 총리이며, 전쟁을 장기화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전쟁 발발 이후 중도 연합과 시민사회는 인질 귀환과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하며 네타냐후 총리 퇴진 압박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시위가 반복적으로 조직됐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 정치적 레임덕 국면에 들어서면서, 네타냐후와 연정 내 초강경파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를 전략적 ‘기회의 창’ 시기로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및 대리조직에 대한 공세를 지속·확대했고, 휴전 협상에는 정면으로 반대했다. 나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기대하며 휴전을

11. Elliott Abrams, “For Israel, After the Gaza War Comes Politic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ctober 6, 2025), <https://www.cfr.org/article/israel-after-gaza-war-comes-politics>; “Hostage Families: Government Going Against Will of the People by ‘Choosing Territories Over Hostages,’” *The Times of Israel* (May 5,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hostage-families-government-going-against-will-of-the-people-by-choosing-territories-over-hostages/](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hostage-families-government-going-against-will-of-the-people-by-choosing-territories-over-hostages/).

지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고, 정치적 생존과 권력 복귀를 위한 고위험 도박을 감행했다.<sup>12</sup>

더불어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네타냐후 총리와 정치권은 이스라엘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다. 군참모총장은 장기전에 따른 군의 피로 누적과 사기 저하를 지적하며, 전쟁 목표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휴전 또는 종전 논의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3</sup> 즉, 군 내부에서도 전쟁 지속이 전략적 효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국내 인권 단체들 역시 가자지구 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스라엘 유력 인권단체인 베첼렘(B'Tselem)과 이스라엘 인권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Israel, PHRI)는 7월 예루살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 조직적·고의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인간성과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추방·폭격·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 특히 서방 우방국은 이를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율리 노박(Yuli Novak) 베첼렘 사무총장은 “가자 주민들은 삶의 기반을 상실했으며, 이는 한 집단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하고 의도적인 민간인 대상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전쟁의 장기화는 군 내부의 전략적 회의, 정치권 내부의 권력 투쟁, 시민사회 차원의 도덕적 비판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sup>14</sup>

네타냐후 정부의 전쟁 종식 거부는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초래했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1년을 넘어서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과 외교적 고립에 직면했다. 2024년 5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군사 수장 야히야 신와르(Yahya Sinwar)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동시

12. 장지향, 강충구, 2025,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식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 전망,” *아산리포트*, 아산정책연구원.

13. Isabel Kershner, “Rifts Grow Between Netanyahu and His Security Chiefs,”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8, 2025), <https://www.nytimes.com/2025/09/18/world/middleeast/israel-netanyahu-military-gaza.html>.

14. 현윤경, “이스라엘 안보교리 변화와 역내 파장,” 연합뉴스, 2025년 7월 2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9036800009>.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항의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다.<sup>15</sup>

프랑스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2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이를 실제로 실행했다.<sup>16</sup>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 주도로 상정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의안을 142개국 찬성으로 대규모 채택했다.<sup>17</sup>

한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깊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는 강한 포위감과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군사·안보 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켰다. 전쟁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가·비국가 여부를 떠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군사 대응이 정당화된다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부담으로 간주되던 예방전쟁도 감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안보 전략을 채택했다.

### 3. 하마스의 위기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기회

하마스는 약 2년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지도부가 대거 제거되고 지휘 체계가 붕괴하는 등 조직적 위기에 직면했다. 전쟁 개전 초기부터 하마스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실질적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고립된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 2023년 11월 이스마일 하니예 정치국장이 테헤란에서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은 하마스가 전쟁을 지속할 전략적 기반을 상실했음을 상

15. James Landale, "Spain, Norway and Ireland Recognise Palestinian State," *BBC News* (May 29, 20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l77drw22qjo>.

16. Angelique Chrisafis, "France to Recognise Palestinian State at UN General Assembly, Macron Says," *The Guardian* (July 25,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24/france-to-recognise-palestinian-state-at-un-general-assembly-macron-says>.

17. Evelyn Ann-Marie Dom, "UN General Assembly Votes to Back Two-State Solution for Israel and Palestine," *Euronews* (September 13, 2025), <https://www.euronews.com/2025/09/13/un-general-assembly-votes-to-back-two-state-solution-for-israel-and-palestine>.

징적으로 보여줬다.<sup>18</sup>

가자지구 내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주민 지지는 크게 약화됐다. 대규모 공습으로 도시 기반시설 대부분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난민화·기아·주거 붕괴에 직면하자, 하마스가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러한 참사를 초래했다는 책임론이 확산됐다.<sup>19</sup> 또한 하마스 내부에서는 10월 7일 공격을 주도한 강경파와 사후에 이를 정당화해야 했던 세력 간에 전략적·정치적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국제사회가 제안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 하마스 통치 종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 PA) 복귀 문제를 두고 파별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됐다.<sup>20</sup>

역내 아랍권에서도 하마스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했다. 202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가 주도한 유엔 회의에서 이집트·요르단·튀르키예가 참여한 가운데 하마스는 가자 행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아랍연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하마스에 무장 해제와 통치권 이양을 요구했다. 이로써 하마스는 가자지구 통치 정당성은 물론 팔레스타인을 대표할 정치적 권위도 심각하게 손상됐다. 하마스를 연구해온 칼레드 흐루브(Khaled Hroub) 교수의 평가처럼, 하마스의 ‘저항 서사’는 이번 전쟁 이후 오히려 최악의 비판 대상이 됐고, 아랍 언론들은 하마스를 국제역학 관계와 군사력 균형을 오판한 무능한 조직으로 묘사하며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했다.<sup>21</sup>

하마스의 무장공격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PA 수반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서안과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18. Parisa Hafezi, Laila Bassam, and Arshad Mohammed, “Iran’s ‘Axis of Resistance’ Against Israel Faces Trial by Fire,” *Reuters* (November 16, 2023),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s-axis-resistance-against-israel-faces-trial-by-fire-2023-11-15/>.

19. Claire Parker, Heba Farouk Mahfouz, Hazem Balousha, and Hajar Harb, “In War-Battered Gaza, Residents Grow Angry With Hamas,” *The Washington Post* (April 27, 2024),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4/04/27/gaza-hamas-public-support-israel/>.

20. Ehud Yaari and Matthew Levitt, “Growing Internal Tensions Between Hamas Leaders,” *PolicyWatch* No. 3825,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December 21, 2023),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growing-internal-tensions-between-hamas-leaders>.

21. Al Sharq Youth, “أين نقف القضية الفلسطينية اليوم؟ وما مستقبلها؟ | بودكاست الشرق,” YouTube (July 5,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re5KZ4YbXRs>.

여론이 확산되자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이후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자, 그의 측근이자 PA 대변인인 나빌 아부 루데이네(Nabil Abu Rudeineh)가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전쟁이지 팔레스타인 국민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하마스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sup>22</sup>

그러나 PA 자체도 무능과 부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30년 넘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진전되지 못한 배경에는 자치정부 내부의 행정적 무능, 불투명한 권력 운영, 그리고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시절부터 축적된 구조적 부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 지지 기반을 잠식했고, 결국 PA의 정통성과 통치력 약화를 가져왔다.<sup>23</sup> 동시에 이스라엘 정부는 PA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대원의 가족을 지원한다는 점, PA 교육 교재가 이스라엘을 악마화한다는 점을 들어 PA와의 협상을 거부해 왔다.<sup>24</sup> 그럼에도 서안과 가자지구의 안정 유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PA였다.

아랍 국가들과 미국은 PA가 역내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개혁의 핵심 조건으로 암바스 수반의 명예로운 퇴진, 국제적으로 신뢰 가능한 총리 임명, 그리고 세계은행 감독 하의 투명한 재정·예산 체계를 제시했다. 전쟁 발발 후 1년여가 지나자 암바스 수반은 마침내 개혁을 추진했다. 2024년 11월 발표한 칙령에서 그는 대통령 직무가 공석이 될 경우, 그 권한을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Palestinian National Council, PNC) 의장에게 이양하고, 9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를 의무화

22. Yohanan Tzoreff, “The Palestinian Authority’s Attempt to Resolve Its Rivalry with Hamas,” *INSS Insight* No. 1961,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March 18, 2025), Tel Aviv University, <https://www.inss.org.il/publication/pa-hamas/>.

23. Ghaith al-Omari, “How the Palestinian Authority Failed Its People,”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October 19, 2023),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how-palestinian-authority-failed-its-people>.

24.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alestinian Prisoner Payments,” *Breaking the Israel-Palestine Status Quo: A Rights-Based Approach Project* (2024), <https://carnegieendowment.org/features/palestinian-prisoner-payments?lang=en>; Elliott Abrams; “The Palestinian Authority Continues to Teach Hate and to Reward Terro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ure Points* (March 31, 2025), <https://www.cfr.org/blog/palestinian-authority-continues-teach-hate-and-reward-terror>.

했다.<sup>25</sup> 암바스 수반은 또한 서안 북부 난민 캠프 내 무장 세력에 대한 PA 보안군의 작전을 승인했는데, 이는 하마스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해 그동안 회피해 온 조치였다. 2024년 12월부터 PA 보안군은 이스라엘군과 공조해 제닌 난민 캠프에서 제닌 여단 등 자생 무장 조직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전개했으나, 작전은 무장 세력과의 합의 속에 중단됐고 완전한 무장해제는 이루지 못했다.<sup>26</sup>

[그림 3] 2024년 3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새 내각 출범



출처: 연합뉴스.

이어 2024년 1월 암바스 수반은 파타흐(Fatah)에서 추방된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고, UAE의 지원을 받는 무함마드 다훌란(Mohammed Dahlan)도 이에 포함됐다. 2025년

25. "Palestinian Leader Abbas Lays Ground for Succession," Arab News (November 28, 2024), <https://arab.news/g3kuq>.

26. "Palestinian Security Forces Clash with Militants in West Bank," Reuters (December 15, 2024),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palestinian-security-forces-clash-with-militants-west-bank-2024-12-14/>.

3월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 연맹 정상회의에서 암바스 수반은 PA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지도부 전면 쇄신 계획과 1년 내 선거 실시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sup>27</sup>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그간 PA에 비판적이었던 수니파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며, 동시에 이집트가 주도하고 아랍 연맹이 지지한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도 일치한다. 암바스 수반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하마스 배제하에 PA가 가자 행정 통제를 재개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고, ‘한 개의 무기, 한 개의 법(one weapon, one law)’이라는 원칙을 거부하는 하마스가 민족 화해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sup>28</sup> 결과적으로 하마스는 통치 정통성 회복 가능성성이 크게 약화된 반면, PA는 개혁 과정의 실제 성과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통 정부로 재부상할 기회를 얻게 됐다.

---

27. “Palestinian Authority President Abbas Says Ready to Hold Elections Within a Year,” *France 24* (March 4, 2025), <https://www.france24.com/en/middle-east/20250304-palestinian-president-abbas-says-ready-to-hold-elections-within-a-year>.

28. Claire Parker, Heba Farouk Mahfouz, and Mustafa Salim, “Arab Leaders Adopt Gaza Reconstruction Plan in Rebuke of Trump’s Vision,” *The Washington Post* (March 4, 2025),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3/04/arab-leaders-gaza-summit/>.

### III.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후 인식 변화

#### 1. 이스라엘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스라엘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대응에 따른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와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은 이스라엘 여론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이스라엘 여론은 시기별로 바뀌었다.

전쟁과 여론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는 안보 위협에 마주한 대중이 단기간 결집하는 양상을 보고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쟁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와 대외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여론이 분화하는 양상을 기술한다.<sup>29</sup> 실제 전쟁 초기,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예기치 못한 안보 위협에 즉각 대응했다. 이에 따른 여론 변화는 이스라엘인의 정치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이스라엘 국내 정치, 즉 선거와 연정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

##### 1) 전쟁 초기: 하마스 기습과 이스라엘의 대응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긴장의 폭발이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후 이스라엘은 안보를 명분으로 봉쇄와 통제 정책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는 가자지구 내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며 하마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스라엘은 감시 체계, 지하 장벽, 아이언 돔 미사일방어망을 통해 하마스의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

29.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에 대한 경험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John E. Mueller, 1970.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1), pp. 18–34; Matthew A. Baum, 2002. "The Constituent Foundations of the Rally-Round-the-Flag Phenomen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6: pp. 263–298; Marc J. Hetherington and Michael Nelson, 2003. "Anatomy of a Rally Effect: George W. Bush and the war on Terrorism,"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6(1), pp. 37–42.

해 이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오판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하마스의 공격준비 정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안보체계의 허점을 노려 기습을 감행했다. 즉, 하마스의 기습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정책의 장기적 부작용, 안보당국의 정보 실패, 과도한 기술적 억제력 의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전쟁 직후 이스라엘인 86%는 네타냐후 총리가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고, 이에는 연정 지지자 79%도 동의했다. 또 이스라엘인 56%는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가 총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sup>30</sup> 이 시기 여론 변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인 다수가 한편으로는 대규모 군사력 투입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습격으로 이스라엘 내 충격이 컸고, 이스라엘 민간인 1,4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커기 때문에 보인다.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 즉 외교안보 위기에서 대통령,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단기간 상승하는 현상이 전쟁 초기에 일어났다. 전쟁으로 이스라엘 대중 간 정치 분열이 일시적으로 잦아들었고, 언론과 정치권도 위기 프레임으로 비교적 일치된 메시지를 냈다. 2023년 10월 18~19일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인 65%는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을 지지했고(반대 21%),<sup>31</sup> 11월에는 57.5%가 당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무력 개입 수준을 너무 약했다(too little)고 평가했다[적정했다(appropriate) 36.6%, 과했다(too much) 1.8%].<sup>32</sup>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무력개입 계획 시 민간인 피해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30. “Israelis blame gov’t for Hamas massacre, say Netanyahu must resign – poll,” *The Jerusalem Post* (October 12, 2023), <https://www.jpost.com/israel-news/article-767880>.

31. “Poll: 80% of Israelis say Netanyahu must publicly take responsibility for Oct. 7 failures,” *The Times of Israel* (October 20, 2023),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poll-80-of-israelis-say-netanyahu-must-publicly-take-responsibility-for-oct-7-failures/](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poll-80-of-israelis-say-netanyahu-must-publicly-take-responsibility-for-oct-7-failures/).

32. “What Israelis Think of the War With Hamas,” *The Time* (November 10, 2023), <https://time.com/6333781/israel-hamas-poll-palestine/>.

도 80% 이상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72%는 자국 포로가 석방될 때까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sup>33</sup> 실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물자 운송을 봉쇄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sup>34</sup>

그러나 전쟁 발발 2~3주 후 이스라엘 여론은 다르게 흘러갔다. 전쟁 개시 3주 후, 이스라엘인 49%는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신속한 무력 개입을 지지한 비율은 29%에 그쳤다.<sup>35</sup> 당시 22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있었고,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이 사망하면서 한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던 지상군 투입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종합하면, 이스라엘인은 하마스 궤멸에 동의하면서도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상군 투입이 최선인지에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 2)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분화

하마스의 공격 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인 다수는 인질 송환에 무게를 두며 전쟁 종식을 원했다. 전쟁 발발 직후 급증했던 이스라엘 응답자의 연대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이 가자지구를 넘어 확전 양상을 띠면서 이스라엘인 사이에 전쟁 종식과 인질 귀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년 9월, 이스라엘인 53%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에 동의했다(반대 36%). 이 경향은 유대계(45%)에 비해 아랍계(74%)에서 높았다. 이들이 전쟁 중단을 원한 이유는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그러나 유대계는 전쟁 중단을 우선시한 좌파(83%)나 중도(61%) 성향 응답자와 달리, 자신을 우파(61%)로 볼수록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33. Richard Hardigan, "Polls Show Broad Support in Israel for Gaza's Destruction and Starvation," *Truthout* (February 10, 2024), <https://truthout.org/articles/polls-show-broad-support-in-israel-for-gazas-destruction-and-starvation/>.

34. MEE, "War on Gaza: Israeli protesters block aid trucks from entering the strip," *Middle East Eye* (February 2, 2024), <https://www.middleeasteye.net/news/war-gaza-israel-protesters-block-aid-trucks-nitzana-crossing>.

35. Rory Carroll, "Israelis hesitant over Gaza ground invasion amid hostage fears, poll shows," *The Guardian* (October 27, 202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oct/27/israelis-hesitant-over-gaza-ground-invasion-amid-hostage-fears-poll-sh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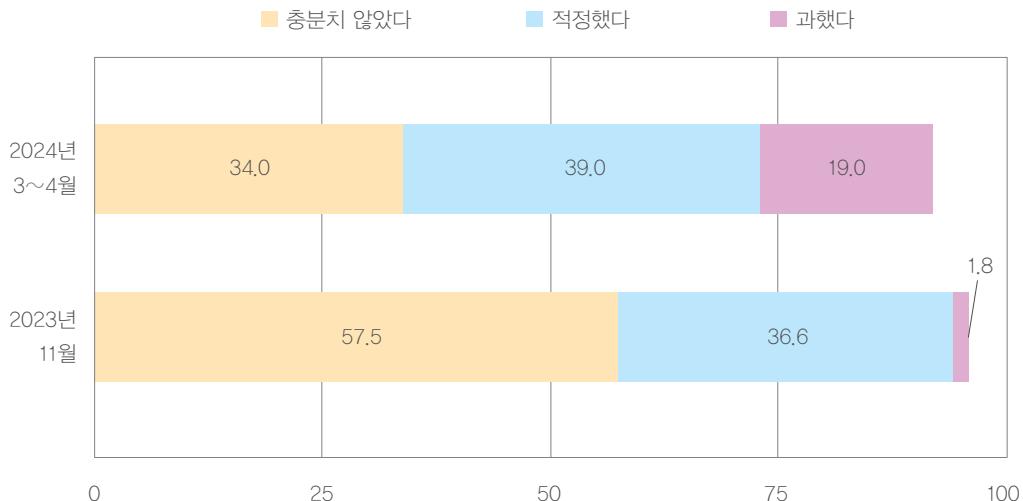
위 경향은 전쟁 최우선 목표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1월에는 인질 송환을 첫째로 꼽은 응답이 51%, 하마스 공격에 집중해야 한다는 답이 36%였다. 반면, 2024년 9월에는 62%가 이스라엘 인질 송환, 29%가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들었다. 둘의 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나, 인질 송환은 10%p 가량 늘었고 하마스 격퇴는 7%p 줄었다. 인질 송환이 최우선이란 답은 아랍계(77%), 좌파(86%), 중도(78%)에서 높았다. 장기화한 전쟁, 팔레스타인 내 대규모 민간 피해가 이스라엘인의 연대에 균열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스라엘 내 여러 계층 간 연대는 낮아졌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에선 정치 분열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사회 균열은 다시 불거졌다. 이스라엘 내 사회 연대 의식은 전쟁 직후(2023년 12월) 54%로 나타났으나, 2024년 9월 이스라엘 내 연대 의식이 높다는 답은 26%로 절반 수준이 됐다(낮다 44%).<sup>36</sup> 앞서 가정한 외부 위협 등 장에 따른 대중의 결집효과가 전쟁 초기에 나타났지만, 이내 이스라엘 계층 간 균열이 재부상하며 연대 의식이 약화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지지한 목소리도 약해졌다. 2024년 3~4월 조사에 따르면, 39%는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적정하다(been about right)고 했다. 충분치 않다(not gone far enough)는 34%, 과했다(gone too far)는 19%였다. 전쟁 초기 대비 충분치 않다는 답이 줄었고, 과했다는 답은 크게 늘었다. 군사 대응이 지나쳤다는 답은 아랍계에서 74%로 유대계(4%)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부정 인식 격차(아랍계 92%, 유대계 48%)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sup>37</sup>

36. Michael Bachner, "Poll finds deep divisions on Gaza war goals as post-October 7 solidarity dissipates," *The Times of Israel* (October 7, 2024), <https://www.timesofisrael.com/poll-finds-deep-divisions-on-gaza-war-goals-as-post-october-7-solidarity-dissipates/>.

37. Laura Silver and Maria Smerkovich, "Israeli Views of the Israel-Hamas War: Jewish Israelis and Arab Israelis see the war very differently," Pew Research Center (May 30, 2024),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4/05/30/israeli-views-of-the-israel-hamas-war/>;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군 지도부 인식에서도 여론 분화는 드러났다. 5점 척도(1~5점)에서 대개 2점 내외로 이들(네타냐후 총리 2.17, 라피드 야당 대표 2.10,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 1.90점, 간츠 전 국방장관 2.47점, 갈린트 국방장관 2.67점, 할레비 참모총장 2.75점)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우파나 유대계는 중도나 좌파보다 후한 평가를 했다. Michael Bachner, "Poll finds deep divisions on Gaza war goals as post-October 7 solidarity dissipates," *The Times of Israel* (October 7, 2024), <https://www.timesofisrael.com/poll-finds-deep-divisions-on-gaza-war-goals-as-post-october-7-solidarity-dissipates/>.

[그림 4]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에 대한 시기별 인식<sup>38</sup> (단위: %)

위 변화에는 전시 재정 부담 인식도 일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경제 부담이 대중 반발, 전쟁 피로도를 높인 것으로 읽힌다. IMF는 전쟁이 갖는 글로벌 경제 충격 즉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 위축 등을 경고했고, 2023년 4분기 이스라엘 경제가 19.4% 위축됐다고 밝혔다.<sup>39</sup> OECD에 따르면 2025년 경제 전망은 전쟁으로 인한 역내 긴장이 완화될 경우 3.4% 회복을 내다봤지만, 이스라엘 GDP는 2023년 2.0%에서 2024년 0.9%로 크게 감소했다.<sup>40</sup> 경기 둔화에 민감한 중산층, 젊은 층은 전쟁을 경제적 비용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들을 중심으로 종전을 원하는 태도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38. 그림 1에 제시한 두 조사는 본문에 인용한 2023년 11월, 2024년 3~4월 조사결과이다. 이스라엘의 군사대응을 평가한 두 문항은 질문과 응답지가 달랐으나, 제한적이지만 본문에 기술한 자료 해석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39. David Lawder, "IMF says escalation of Middle East conflict poses significant economic risks," *Reuters* (October 4, 202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mf-says-escalation-middle-east-conflict-poses-significant-economic-risks-2024-10-03/>; Steven Scheer, "Gaza war hits Israeli economy with 19.4% Q4 drop," *Reuters* (February 19, 2024),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gaza-war-hits-israeli-economy-with-194-q4-drop-2024-02-19/>.
40. Steven Scheer, "OECD sees Israeli economic rebound if military conflicts ebb," *Reuters* (April 2, 202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oecd-sees-israeli-economic-rebound-military-conflicts-ebb-2025-04-02/>.

### 3) 정전 협정과 재개된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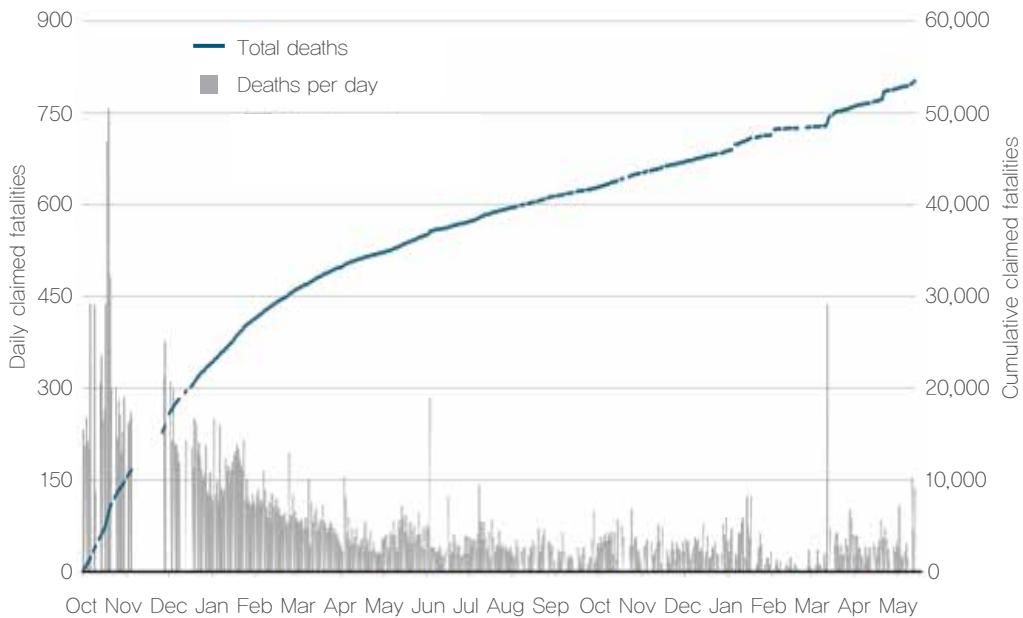
2025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1월 15일, 양측은 트럼프 정부의 압력하에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휴전 협정에 합의했다. 1월 19일 발효된 이 협정은 가자지구 휴전과 동시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포로교환 등을 골자로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기됐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정전 요건을 위반했다며 인질 석방을 중단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수감자 교환이 더 이뤄지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할 것으로 위협했다. 곧 전쟁은 재개됐고, 가자지구에선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평화안’을 발표했다.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이 공식 서명했고, 서방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지지했다. 물론 1단계 이후가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합의가 전쟁 종식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가자지구 내 누적 인명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그림 1] 참조).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팔레스타인인 60,034명[아동 18,582명(31%), 여성 9,782명]이 사망했고, 145,870명이 부상당했다.<sup>41</sup>

또한 가자지구 거주민 약 90%는 실향민이 됐고, 최근에는 약 200만 명이 기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파기한 2025년 3월 이후에도 8,755명이 더 사망했고, 최소 33,1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기반시설 피해도 커는데, 가자지구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6만 채 이상이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교육 시설 370곳도 크게 파손됐다.<sup>42</sup>

41. Wafa Shurafa and Samy Magdy, “Palestinian death toll in Israel-Hamas war passes 60,000, Gaza Health Ministry says,” AP News (July 30, 2025), <https://apnews.com/article/palestinians-death-toll-war-health-ministry-816d592952814db869924f9626ca8876>; 공식 사망자 통계는 실제 사망자 수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 인명 피해를 파악할 목적으로 일 단위, 누적 사망자 수 집계치를 본문에 재인용했다. Sammy Westfall, Amaya Verde, Júlia Ledur and Hazem Balousha, “60,000 Gazans have been killed. 18,500 were children,” *The Washington Post* (July 30, 2025),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interactive/2025/israel-gaza-war-children-death-toll/>; 여러 사상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공식 사망자 수가 낮게 집계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Gaza death toll 40% higher than official number, Lancet study finds,” *The Guardian* (January 10,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an/10/gaza-death-toll-40-higher-than-official-number-lancet-study-finds>.

[그림 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가자지구 사망자 수 (단위: 명)



출처: Gabriel Epstein, "Assessing the Gaza Death Toll After Eighteen Months of War,"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May 21, 2025),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assessing-gaza-death-toll-after-eighteen-months-war>.

이번 전쟁은 2008~2009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 또한 1948~1949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후 이스라엘 사망자 수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휴전이 반복 파기되고, 피해가 가중되면서 이스라엘 여론은 군사적 해결보다 외교적 접근과 인도주의 중심 해결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인 다수는 전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면서 전면전보다 종전을 원하는 여론이 점차 우세해졌다. 2025년 2월, 73%는 이스라엘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가자

42. AJLabs, "Israel-Gaza war death toll: Live tracker," Aljazeera (July 28,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3/18/gaza-tracker>.

지구에서 철수, 인질 송환을 대가로 팔레스타인 포로를 석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sup>43</sup> 또한 69%는 전쟁 종식의 대가로 남은 인질 59명을 송환하는 합의에도 지지를 표했다(반대 21%). 야당, 연정 지지층은 각각 86%, 54%가 이에 동의했다.<sup>44</sup>

아울러, 2025년 1월 이스라엘인 62%는 두 국가 해법을 반대했는데, 이는 2023년 10월 이전에 46%를 기록했던 것 대비 차이를 보였다. 한편으로는 18%가 팔레스타인인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고, 이스라엘인 대다수는 하마스의 기습 후 이어진 전쟁에 대량학살 의도가 있다고 봤다(매우 동의 80%, 대체로 동의 14%).<sup>45</sup>

최근에는 이스라엘인 다수가 자국 매체를 통해 가자지구 내 열악한 상황을 직접 접하며 전쟁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좌파(70%)나 중도층(32%)을 중심으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들의 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유대계 6%)가 컸지만, 이스라엘에서 반전을 원하는 층이 늘어난 것은 주목할 점이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으로 정치적 생존을 연장하며,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문 점도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sup>46</sup>

2023년 10월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 여론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쟁 초기 하마스

- 43. Sam Sokol, "72.5% of Israelis believe Netanyahu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Oct. 7 and resign," *The Times of Israel* (March 9,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72-5-of-israelis-believe-netanyahu-should-take-responsibility-for-oct-7-and-resign/>.
- 44. "Poll: 70% of Israelis don't trust government, including a third of coalition voters," *The Times of Israel* (March 29, 2025), <https://www.timesofisrael.com/poll-70-of-israelis-dont-trust-government-including-almost-half-of-coalition-voters/>.
- 45. Nils Mallock, and Jeremy Ginges, "We interviewed hundreds of Israelis and Gazans – here's why we fear for the ceasefire," *The Conversation* (February 12, 2025), <https://theconversation.com/we-interviewed-hundreds-of-israelis-and-gazans-heres-why-we-fear-for-the-ceasefire-249522>.
- 46. Anat Paled, "More Israelis Question Morality of War in Gaza,"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4, 2025),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israeli-public-opposition-gaza-conflict-42394b7b?utm>; 네타냐후 총리가 일부러 전쟁을 연장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2년 이상 이어진 전쟁은 네타냐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란 공습은 이스라엘 내 정치 지형을 반전시켰으며,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부활했다는 평도 나왔다. Patrick Kingsley, Ronen Bergman, and Natan Odenheimer, "How Netanyahu Prolonged the War in Gaza to Stay in Power," *The New York Times Magazine* (July 11, 2025), <https://www.nytimes.com/2025/07/11/magazine/benjamin-netanyahu-gaza-war.html>.

의 기습에 이스라엘 대중은 결집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스라엘인의 연대는 약해졌다. 이스라엘 여론은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한 군사적 응징과 인질 생환을 둘러싸고 분열됐고,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커지면서 대중은 정부 정책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민간인 피해가 누적되고 전쟁이 가지지구를 넘어 레바논과 예멘 등지로 확산되면서, 이스라엘인의 일상에 직접 타격을 준 점도 전쟁 비용에 대한 인식을 뚜렷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조적 피해는 단기 충격을 넘어 대중의 전쟁 피로도, 정부 정책 신뢰도에 부정 영향을 미쳤고, 2025년 여론조사는 이스라엘 인질 귀환을 우선시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답이 늘어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전형적인 전쟁 후유증이 나타나며 전쟁 회의론은 더 강해졌다. 결국,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 내 결집효과는 전쟁 초기 강하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흐르며 전쟁 비용에 따른 피해, 부담으로 여론은 바뀌었다.

## 2. 팔레스타인<sup>47</sup>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역사적 기원은 20세기 내내 이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과 이에 이어진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2025년 7월 기준 민간인을 포함해 약 6만 2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15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지상군을 투입했고, 2023년 11월과 2025년 1월 두 차례 휴전이 있었으나, 2025년 3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휴전 협정이 깨졌고, 7월 말에도 휴전 협정이 또 결렬되며 전쟁은 지속됐다.

장기화한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전쟁이 가지지구 내 인도적 위기로 성격이 바뀌면서 여론은 다른 양상을 띠었다. 가지지구에선 이스라엘의 봉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기아위기, 영양실조 등이 발생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고, 반유대주의가 확산했다. 이에는 팔레스타인의 인적·물적 피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군사력 격차, 미국의 외교-군사적 지원 여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

47. 전후 팔레스타인 여론조사 자료는 팔레스타인정책연구소(Policy and Survey Research; <https://pcpsr.org/>)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사,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 1) 하마스 기습에 따른 여론 결집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기습 공격 계획을 발표하며 20분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3,000~5,000발을 발사했다. 이후, 약 3,000명의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에 침투하여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질로 삼고, 민가 등에 불을 질렀다. 적어도 이스라엘인 1,200명이 사망했고, 250여 명이 인질로 잡혔다.<sup>48</sup> 대부분 민간인이었는데, 여러 외신은 하마스의 군사 작전에 이스라엘이 당했다고 보도했다.

전쟁 발발 직후, 팔레스타인 주민 72%는 하마스의 공격 개시가 정당하다고 봤다[정당하지 않다(incorrect) 22%]. 거주지와 관계없이, 다수(서안 82%, 가자 57%)가 하마스의 기습을 지지했다.<sup>49</sup> 이는 2024년 3월에도 팔레스타인 내 다수를 차지했다(71%).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에 비해 외부 위협에 따른 여론 결집은 상당 기간 지속됐다. 가자지구만 놓고 보면, 이는 2023년 12월 57%에서 2024년 3월 71%로 크게 상승했다.

2024년 6월에도 팔레스타인인 67%는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했다. 가자지구 응답자의 지지가 3월 71%에서 6월 57%로 줄었지만, 서안지구 응답자는 73%가 여전히 하마스의 기습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때까지 팔레스타인 여론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편이었다.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 지지세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개월가량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서안지구 내 하마스 지지 비율은 70% 이상으로 안정적이었다.<sup>50</sup>

위 경향은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물은 문항에 대한 답에서도 드러났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2024년 6월까지 팔레스타인인 70% 내외는 하마스의 승리를 예측했다(최소 64%, 최대 70%).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으로 본 비율은 최소 9%, 최대 12%로 매우 적었다. 어

48. Claire Parker, Siham Shamalakh and Heba Farouk Mahfouz, "Hamas signals new willingness to compromise," *The Washington Post* (August 20, 2025),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8/20/hamas-gaza-ceasefire-deal-negotiations/>.

49. "Public Opinion Poll No (90)," Policy and Survey Research (December 13, 2023), <https://pcpsr.org/en/node/963>. "In your view, was Hamas decision to launch its offensive against Israel on 7 October a correct or incorrect one?"

50. Kobi Michael, "What can we learn from the public opinion polls in Palestinian society?"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November 12, 2024), <https://www.inss.org.il/publication/palestinian-survey-2024/>.

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는 답은 15% 내외를 기록했다(14~18%).<sup>51</sup> 전쟁 초기에 결집한 팔레스타인들이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 낙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 초 팔레스타인 여론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를 지지한 비율이 70% 내외로 나타났다. 또한 비현실적이었으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 하마스의 전쟁 승리를 예측했다. 둘째, 하마스 지지로 표출된 내부 여론 결집은 6개월가량 지속됐다. 전쟁이 팔레스타인에 불리하게 전개되며, 팔레스타인 내 여론 결집이 이스라엘에 비해 더 오래 이어졌다. 셋째, 가자지구보다 서안지구 주민의 하마스 지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 피해가 가자지구에 집중된 탓으로 해석된다.

## 2) 장기전의 여파: 전쟁 전으로 회귀한 여론

전쟁 초반인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 내 여론은 강한 결집 양상을 보였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60%가 하마스의 전후 가자지구 통치를 바랐고, 95%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와 달리, 하마스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비율은 10%에 그쳤다.<sup>52</sup> 하마스가 전쟁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낮았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인의 호의적 인식은 약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수단(협상, 평화적 저항, 무장투쟁)으로 무장투쟁을 선호한 비율은 전쟁 전후로 달랐다. 무장투쟁 선호 비율은 전쟁 전(2023년 9월) 53%에서 전쟁 직후(2023년 12월) 63%까지 상승했다가, 2024년 3~9월에 50% 전후로 약 10%p 감소했다. 이에 비해 협상과 평화적 저항을 고른 답은 전쟁 발발 직후 각각 20%, 13% 최소치를 기록했으나 곧 반등해 협상은 전쟁 전 수준이 됐고, 평화적 저항은 15%대를 유지했다.<sup>53</sup>

- 
- 51. “Public Opinion Poll No (93),” Policy and Survey Research (September 17, 2024), <https://pcpsr.org/en/node/991>. “In your opinion, in this war, who will emerge victorious, Hamas or Israel?”
  - 52. “Public Opinion Poll No (90),” Policy and Survey Research (December 13, 2023), <https://pcpsr.org/en/node/963>.
  - 53. Kobi Michael, “What can we learn from the public opinion polls in Palestinian society?”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November 12, 2024), <https://www.inss.org.il/publication/palestinian-survey-2024/>. “In your view, what is the best mean of achieving Palestinian goals in ending the occupation and building an independent state?”

하마스 무장투쟁에 대한 팔레스타인 여론은 전쟁 발발로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쟁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2023년 7월, 팔레스타인인은 하마스에 대한 분노와 가자지구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당시 가자지구 주민 다수는 하마스의 비효율적 통치에 무력감을 드러냈고, 하마스의 이념에도 동조하지 않았다. 즉, 역설적으로 하마스의 기습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팔레스타인인의 하마스 지지를 높인 셈이다.

하마스 무장투쟁에 대한 지지는 가자지구에서 더 낮았다. 전쟁 발발 직후(2023년 12월), 56%였던 이 수치는 2024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4년 9월 36%까지 감소했다(최소 36%, 최대 56%). 반면, 서안지구 내 무장투쟁 지지는 2023년 12월 68%까지 상승했다가 2024년 9월 56%로 낙폭이 적었다. 하마스의 무장투쟁 지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향은 같았으나, 그 진폭은 응답층 별로 엇갈렸다. 이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직접 노출 여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sup>54</sup>

위 경향은 전쟁 전(2023년 9~10월)에 이뤄진 아랍바로미터(Arab Barometer) 8차 조사 결과와 일관된 것이었다. 당시 가자지구 주민은 하마스를 신뢰하지 않았고(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3%, 신뢰한다 29%), 하마스가 이끄는 정권이 주민 요구에 잘 반응한다는 답은 26%에 불과했다. 나아가 72%는 하마스 정권에 부패가 있다고 봤고, 67%는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Mahmoud Abbas)의 사임을 원했다.

가자지구 주민이 마주한 경제적 어려움도 대하마스 신뢰를 약화시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가자지구 빈곤율은 2011년 39%에서 2017년 53%, 2023년에는 64%까지 상승했다. 또한 전쟁 후에는 주민 대부분이 빈곤 상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5</sup> 2023년 당시 가자지구 응답자 78%는 식량 공급을 ‘매우’ 또는 ‘대체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75%는 지난 30일 동안 식량이 떨어졌고 구매할 돈이 부족했다고 했다. 2021년 51% 대비, 2년간 일어난 변화로 상황은 크게 악화된 것이다. 식량난에 대해선 외부 재재보다 하마스의 행정

54. “Public Opinion Poll No (93),” Policy and Survey Research (September 17, 2024), <https://pcpsr.org/en/node/991>.

55. “World Bank Report: Impacts of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on the Palestinian Economy,” United Nations: The Question of Palestine (September 26, 2024), <https://www.un.org/unispal/document/world-bank-report-26sep24/>.

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sup>56</sup>

같은 맥락에서 하마스의 전쟁 승리를 내다본 비율도 2024년 9월 50%가 됐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쟁 직후 70%까지 상승했던 이 수치는 약 9개월 사이 20%p나 감소했다. 2024년 6월 67%가 같은 예측을 한 것에 비해서도 17%p나 줄어든 것이었다. 이는 전쟁이 가자지구 내 확산된 기아 현상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로 바뀔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자지구 내 여론 변화는 더 극적이었는데, 서안지구 응답층 대비 차이를 보면 더 뚜렷했다. 2024년 6월까지 가자지구 응답자는 50% 내외가 하마스의 전쟁 승리(최소 48%, 최대 56%)를 전망했다. 그러나 3개월 뒤(9월), 같은 예측을 한 비율은 28%까지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안지구 응답자는 70% 안팎, 즉 적어도 65%, 많게는 79%가 하마스의 승리를 전망했다.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지 않은 이들은 전반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도 하마스에 호의적 여론을 유지했다.<sup>57</sup>

### 3) 전쟁 피로에 따른 여론 변화

장기전 피로에 의한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 지지 여론 균열은 2024년 9월부터 나타났다. 2024년 6월 67%였던 하마스 지지율은 9월 54%가 됐고, 2025년 5월에는 50%까지 크게 하락했다. 2024년 6월 대비 두 차례 연속 하락했고, 가장 최근인 5월에는 절반만 하마스의 기습이 정당했다고 봤다. 반대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한 답은 2024년 9월 35%, 2025년 5월 40%로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의 하마스 지지율이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의미있는 변화였다.

56. Amaney A. Jamal and Michael Robbins, "What Palestinians Really Think of Hamas," *Foreign Affairs* (October 25,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israel/what-palestinians-really-think-hamas>; 실제 식량난 원인으로 하마스의 부실한 운영을 꼽은 가자지구 응답자는 31%로 가장 많았고, 인플레이션이 26%, 이스라엘의 경제 봉쇄가 1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하마스에 대한 내부 비판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57. Kobi Michael, "What can we learn from the public opinion polls in Palestinian society?"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November 12, 2024), <https://www.inss.org.il/publication/palestinian-survey-2024/>. "In your view, in this war, who will emerge victorious, Hamas or Israel?"

특히 하마스의 기습을 정당하다고 한 가자지구 응답자는 2024년 6월 57%에서 9월 39%로, 또 2025년 5월 37%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안지구에서는 60% 안팎(2024년 9월 64%, 2025년 5월 59%)이 하마스를 지지한 것과 대조된다. 앞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팔레스타인인의 하마스 지지는 대체로 가자지구 응답자가 하마스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sup>58</sup> 전쟁이 지속되면서 팔레스타인 여론은 서안과 가자지구 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띠었다.

[그림 6] 하마스 기습에 대한 서안과 가자지구 여론 변화 (단위: %)



2025년 3~5월, 가자지구 주민 50% 내외(3월 52%, 5월 49%)가 전쟁이 끝나면 외국으로 이주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장기전에 따른 팔레스타인인의 피로도는 컸다. 가자지구 내 반(反)하마스 시위에 대한 지지가 49%에 이른 점도 전쟁 여파를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sup>59</sup>

58. "Public Opinion Poll No (95)," Policy and Survey Research (May 6, 2025), <https://pcpsr.org/en/node/997>.

59. "New poll shows nearly half of Gazans would leave if given opportunity," New York Post (May 7, 2025), <https://nypost.com/2025/05/07/world-news/new-poll-shows-nearly-half-of-gazans-would-leave-if-given-opportunity/>.

반전된 팔레스타인 여론은 전쟁이 가자 주민들에게 득보다 실이 됐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지난 1세기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의한 인명 피해보다 많았고, 폭격 등으로 파손된 지역은 단기간 내 복구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 만큼 전쟁으로 인한 주거지 훼손, 의료·교육기관 등 기반 시설 붕괴 등은 심각했다. 극심한 인도적 위기로 가자지구에선 2025년 3월 말부터 생존과 식량 확보를 요구하는 반하마스 시위가 시작됐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제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 이 시위는 주민들이 20년간 가자지구를 장악해 온 무장세력, 하마스에 맞서는 것이었다.<sup>60</sup>

위의 변화는 하마스, 파타흐, 암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만족도를 물은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드러났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응답자 70% 이상이 하마스에 만족한다고 했지만, 이는 2024년 9월 61%, 2025년 5월 57%로 하락했다.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어서 2025년 5월(25일)에도 하마스의 기습을 여전히 정당했다고 본 팔레스타인인이 50%였던 점을 고려해도 1년 사이 만족도 하락폭은 큰 편이었다.<sup>61</sup> 그만큼 여론의 진폭이 컸다.

위의 하락은 가자지구 응답층에서 컸다. 같은 기간 최고 64%(2024년 3월)가 하마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2025년 5월에는 43%만 같은 응답을 했다. 약 1년 사이 가자지구 응답자 중 21%p가 하마스에 대한 만족을 철회한 셈이다. 비교적 70% 내외가 계속 하마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서안지구 응답층(최고 85%, 최저 67%) 대비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파타흐, 암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팔레스타인인의 기대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최고 20% 후반에 그쳤다.<sup>62</sup>

2023년 10월 전쟁 발발 후 팔레스타인 여론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쟁 발발 후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 지지는 70% 내외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집한 팔레스타인 여

60. Summer Said, "Hamas's Hold on Gaza Shows Signs of Cracking,"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28, 2025), <https://www.wsj.com/articles/hamass-hold-on-gaza-shows-signs-of-cracking-ffb8f09b>.

61. Khalil Shikaki, "What the Anti-Hamas Protests in Gaza Actually Mean," *Time* (April 2, 2025), <https://time.com/7273410/what-anti-hamas-protests-gaza-mean/>.

62. "Public Opinion Poll No (95)," Policy and Survey Research (May 6, 2025), <https://pcpsr.org/en/node/997>.

론은 이 흐름을 6개월가량 지속했다. 상대적으로 가자지구 내 하마스 지지는 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요동쳤다. 둘째,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시적으로 결집한 하마스 선호 여론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쟁이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로 그 성격이 바뀌면서 하마스 지지는 하락했다. 셋째, 전쟁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팔레스타인 여론에는 균열이 생겼다. 정치적 대안 부재로 하마스 지지가 여전히 절반을 기록했으나, 가자지구 응답층 내 변화 즉 지지율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여론 변화의 함의

#### 1) 이스라엘

전쟁 발발 직후 나타난 이스라엘 내 여론 결집은 2024년에 들어서며 빠르게 약해졌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이스라엘 내 전쟁 우선 목표는 하마스 괴멸에서 인질 귀환과 휴전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압박 지속을 원하는 안보 강경파와 휴전, 인질 송환을 위한 합의를 선호하는 대중 여론 사이에서 상반된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됐다. 정파성과 응답자 정체성에 따라 일부 온도차가 있었지만, 2024년 이후 조사에서는 인질 귀환과 휴전에 대한 높아진 지지가 여러 번 확인됐다.

둘째, 이스라엘 정부의 휴전 연장과 인질 교환에 대한 대응은 향후 정치구도를 재편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전후에 조기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고, 2025년 들어서는 70% 이상이 휴전 연장과 인질 귀환을 지지한 만큼 이스라엘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전쟁 책임론 등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게 됐다.

요약하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 여론은 ‘전쟁 초 외부 위협에 대한 결집→인질 귀환 선호 확산→휴전·인질 교환 수용 가능성 상승’의 경로를 거치며 변화했다. 유대·아랍, 좌·우, 연령대 간 의견차는 여전했으나, 지역 내 확전 위협을 관리하며 인질 귀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정서가 퍼진 결과로 보인다. 이는 2025년 들어 휴전 2단계, 포괄 합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향후 이스라엘 정부는 군사대응의 목표, 속도, 범위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즉, 이

스라엘의 전쟁 대응은 ‘군사적 압박 지속’과 ‘휴전 확대’ 사이를 오갈 것이다. 이는 전쟁 장기화로 초래된 피로감, 인질문제 정치화, 예비군 등으로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전 확대 등 더 이상 전면전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 반전 여론과 강경파 이탈 위협에 따른 압력하에서 ‘부분 휴전-전쟁 재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연정 강경파가 휴전 합의에 반대하며 전쟁 재개 명분을 찾는 등 이스라엘 정부의 출구전략 부재가 전쟁 책임론과 결합해 정부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과 일치한다.<sup>63</sup> 이스라엘은 협상 국면에서는 휴전 연장과 평화안 2단계 진입을 모색하겠지만, 연정 붕괴 위험이 커지거나 하마스의 무장해제 거부가 명확해질 경우 제한적·저강도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2)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팔레스타인 여론은 하마스의 기습의 정당성에 대한 높은 지지로 드러났다. 이런 여론 결집은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12월, 2024년 3~6월에 걸쳐 하마스의 기습을 정당하다고 본 비율은 절반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외부 위협에 대한 내부 결집, 즉 전형적 전쟁 여론이 오래 이어졌는데, 지속기간으로는 이스라엘에 비해 길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고 민간 피해가 누적되면서 보다 핵심적으로 하마스에 대한 실망이 늘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팔레스타인 여론 내 분화가 일부 목격됐다. 하마스의 무장투쟁 선호는 여전했지만, 전후 하마스 통치에 대한 선호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및 종전 협상 논의가 진행되면서 하마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뚜렷해졌다.

위의 여론 변화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팔레스타인 내에서 전후 가자지구 통치를 두고 내부 논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대안 부재에도,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후 통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면서 자치정부 확대, 과도체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개연성이 높아졌다.

---

63. Ksenia Svetlova, “Netanyahu’s phase two dilemma: Political survival vs defying President Trump,” Chatham House (January 24, 2025), <https://www.chathamhouse.org/2025/01/netanyahus-phase-two-dilemma-political-survival-vs-defying-president-trump>.

둘째,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치르며 드러난 서안과 가자지구 간 인식 격차는 팔레스타인 내 여론 분열을 의미했다. 이는 대체로 안보, 통치경험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전쟁에 따른 차별적 피해 즉 가자지구에 집중된 인명 피해는 이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전쟁 발발 후 팔레스타인 여론은 ‘전쟁 초 외부 위협에 대한 결집→장기전으로 인한 피해 및 피로도 증폭→여론 분화에 따른 하마스에 대한 불신, 전쟁 전 수준으로 회귀’ 순으로 변화했다. 주된 이유로는 대규모 민간 피해 누적,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상승 등이 꼽힌다. 가자지구에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 변화 폭이 더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정치적 대안 부재 속에서 여전히 절반 가량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결과는 팔레스타인 여론의 구조적 제약을 보여준다.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의 향방은 ① 하마스의 영향력 유지, ②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한 확대, ③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기술관료 통치기구 강화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마스 무장해제에 대한 팔레스타인 내 여론은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엇갈렸으나, 재건 프로그램과 연계된 팔레스타인 전문관료 위원회와 과도기구 구상에는 일정한 지지가 확인됐다.<sup>64</sup>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특정 세력에 대한 전면적 지지보다 전후 재건과 통치 안정성을 기초로 조건부 선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팔레스타인 국내 정치를 좌우할 변수는 정당이나 파벌 경쟁 재편보다 기존 질서를 대체할 정치적 대안의 부상 여부다. 대표성 회복을 위한 선거 제도가 작동할 가능성이 낮고, 자치정부의 정당성 위기가 지속되는 데다 서안과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은 전쟁 경험 차이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하마스를 대신할 선택지를 단기간에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신과 제한적 지지가 공존하는 여론 구조는 팔레스타인 내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팔레스타인 내 새 정치세력의 등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서안과 가자지구 주민들 간 인식 격차와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가시적 대안 세력이 단기간에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64. “Public Opinion Poll No (96),” Policy and Survey Research (October 28, 2025), <https://www.pcpsr.org/en/node/1000>.

## IV.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란·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

### 1. 이란: 대리조직 공세의 균열과 핵개발 전략의 한계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서구의 악의적 음모 속에서 무슬림 세계를 약화시키고 중동에서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죄악으로 창조된 불법적 실체로 규정했다. 이는 하마스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기둥이었다. 다만 이란의 이데올로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란 안보 전략 전체를 규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이란의 대리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은 이란 안보 전략의 핵심이었으며, 적대국을 억지하고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확장하는 주요 도구로 기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의 이슬람저항군,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무장 대리조직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이 네트워크는 이란이 주요 적대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은 특히 지난 10년간 ‘공세적 방어(offensive defense)’ 전략을 택했다. 이는 잠재적 위협을 이란 영토 바깥, 가능한 한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전에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이었다. 2017년 1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사망한 병사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하메네이는, 만약 ISIS가 이란 국경 밖에서 패퇴되지 않았더라면 그 위협은 테헤란, 파르스, 호라산, 이스파한 등 이란 내부로 직접 확산됐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전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sup>65</sup>

대리조직 연대에 더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 개발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근본적 한계를 지닌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완하는 ‘공세적 방어’ 전략의 핵심 축이었다. 이란은 대리전을 활용해 이스라엘과의 직접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

---

65. Ra Zimmt, “Toward Possible Changes in Iran’s Security Concept,” *INSS Insight* No. 1915 (November 18, 2024). <https://www.inss.org.il/publication/iran-changes/>.

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미사일·로켓·드론 공격 역량을 확대해 이스라엘을 다양한 전선에서 포위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대리 세력 운용, 사이버 역량,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은 모두 이란-이라크 전쟁 후 강화된 억지력과 자주국방에 대한 전략적 집착의 산물이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이란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제한된 방공 역량과 전략 자산 부족을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교훈’으로 해석했다. 이란 시각에서 탄도미사일은 적을 억지하고, 힘을 투사하며,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었다.<sup>66</sup>

아울러 이란의 강경 보수파 지도층은 ‘잠재적 핵 보유국’ 지위가 적대 세력의 공격을 억제하고 정권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핵 프로그램은 이슬람 혁명 이전 샤(Shah) 통치 시기에 시작됐으나, 혁명 직후 초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는 핵무기가 이슬람 원칙과 상충한다고 판단해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후 1990년대에도 이란 지도부는 핵 프로그램이 민간 목적임을 강조하고, 종교법이 핵무기를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시설을 폭격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상황은 급격히 전환됐다. 핵시설 보호를 담당하는 혁명수비대 지휘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Ahmad Haghtalab)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손상시키려 할 경우, 이란이 기존의 핵 독트린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기존에 일관되게 유지해온 ‘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암묵적으로 흔든 발언이었다.<sup>67</sup>

당시 이란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약 330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직접 동

66. Raz Zimmt, “Lessons in Iran from Developments in Ukraine,” INSS *Insight* No. 1955,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Tel Aviv University (March 5, 2025), <https://www.inss.org.il/publication/iran-ukraine/>.

67. “Iranian Commander Says Tehran Could Review ‘Nuclear Doctrine’ Amid Israeli Threats,” Reuters (April 18, 2024),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ian-commander-warns-tehran-could-review-its-nuclear-doctrine-amid-israeli-2024-04-18/>.

시 발사했고,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도 이란 본토를 정조준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 양국은 그동안 대리조직 활용과 비밀활동 중심의 ‘그림자 전쟁’을 수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전례 없는 직접적 군사 충돌로 이어졌고, 중동은 일시적으로 전면전 발발 직전의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

곧 이어 이란 의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자바드 카리미 고두시(Javad Karimi Qoddusi)는 최고지도자가 승인할 경우 이란은 단 1주일 내에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핵무장 가능성을 공식 담론으로 끌어올렸다. 이어 2024년 4월 7일, 샤히드 베헤슈티 대학교 총장이자 핵 과학자인 마흐무드 레자 아가미리(Mahmoud Reza Aghamiri)는 국영 TV 인터뷰에서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가 핵무기 생산을 금지한 파트와를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란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실행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학자이자 전 개혁파 대통령 모하마드 하타미(Mohammad Khatami)의 자문관이었던 사이드 레이라즈(Saeed Laylaz) 역시, 이란이 공격을 받을 경우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무장 전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sup>68</sup>

그럼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까지 이란은 수년간 구축해 온 대리조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도 이웃 아랍 국가들과의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미국이 중동 개입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탈석유 산업 다각화와 체제 안정을 위해 역내 갈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먼저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수니파의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고, 중재 역할은 중국이 맡았다. 이때 이란 역시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와 히잡 의무화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었기에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sup>69</sup>

68. Raz Zimmt and Tamir Hayman, “Between A Nuclear Agreement and Active Containment: Israel and Iran’s Nuclear Program after the War,” INSS Policy Paper (July 22, 2025), <https://www.inss.org.il/publication/iran-nuclear-program/>.

69. Parisa Hafezi, Nayera Abdallah, and Aziz El Yaakoubi, “Iran and Saudi Arabia Agree to Resume Ties in Talks Brokered by China,” Reuters (March 11, 2023),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saudi-arabia-agree-resume-ties-re-open-embassies-iranian-state-media-2023-03-10/>.

이어 2024년 10월,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공격이 임박하자 압바스 아락치(Abbas Araghchi) 이란 외무장관은 확전 위험을 관리하고 외교적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긴급 방문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를 형식적으로 환대하며, 역내 안정과 이슬람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사우디가 단기적으로는 지역 전면 충돌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비전 2030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려는 계산된 행보였다.

한편, 이란은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미국 제재를 견딜 수 있는 경제적 내구성을 끌어올리고자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의 드론 공급은 테헤란과 모스크바의 관계를 전술적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란은 이를 활용해 중동에서의 영향력과 ‘저항의 축’ 결속을 강화했다. 이란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미국 중심 세계질서가 약화되고 다극적 질서가 부상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2022년 11월 연설에서 하메네이 최고 종교 지도자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지배적 강국이 아니며, 정치·경제·문화 권력은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저항의 축’이 확장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보복 작전 앞에서 혁명 이데올로기보다 정권 생존을 우선시하며 전면 대결을 피하고자 했다. 이란은 하마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하마스를 돋기 위해 무력 투쟁에 나선 헤즈볼라를 본격적으로 개입시키지 않았다. 대신 이란은 대리조직을 전면에 내세워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다중 전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도,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 보복을 피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휴전 유도, 하마스의 피해 최소화, 미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제공 중단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추진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sup>70</sup>

이는 이란이 이슬람 혁명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국익을 조정하는 실용주의 전략을 구사해 왔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이란은 시아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보다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를 지지했는데, 이는 강력한 세속국가 아제르바이잔이 이란 내 아제르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

---

70. Raz Zimmt, “Reassessing Fundamental Concepts in Iranian Polic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War in Gaza,” INSS Strategic Assessment (July 2024),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https://www.inss.org.il/strategic\\_assessment/iranian-policy/](https://www.inss.org.il/strategic_assessment/iranian-policy/).

문이었다.

이란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분명해졌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군사적 핵 장치 개발 동결을 허용했다. 이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 특히 강경 보수파 정권의 생존 보장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이다.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직접 군사 충돌을 정권 존속에 대한 실질 위협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에서는 일관된 신중함을 유지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2024년 1월 요르단 북부 미군 기지 공격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이란 대리조직의 드론 공격으로 미국 병사 세 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즉각 확전 방지에 나섰다. 사건 발생 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혁명수비대 알고도스 부대 사령관 에스마일 카아니(Esmail Qaani)는 바그다드로 이동해 시아파 민병대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이러한 공격이 미국의 심각한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을 이스라엘·미국과의 직접 대결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은 최근 몇 년간 자국 군대가 직접 개입하는 돌발적이고 과감한 군사 행동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 변화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더 높은 위협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란 내부 권력구조 변화,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강경파의 영향력 확대와 보수파의 국가기관 장악, 그리고 최고국가안보회의 통제권 확보가 배경이 됐다. 자신의 남은 집권 기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한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의 공세와 내부 도전에 직면한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더 강경한 형태로 공고화해야 한다고 계산한 것이다.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재개한 후 약 1년 동안, 이란은 합의 의무 준수를 유지하며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유럽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이 금융거래 대체 메커니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미국의 제재 압박이 점점 심화되자, 이란의 전략은 변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핵합의 의무에서 단계적으로 이탈하는 한편, 미국과 그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발적 군사 행동을 전개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유조선 공격(2019년 5~6월), 미국 드론 격추(2019년 6월),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순항 미사일 및 드론 공격(2019년 9월)은 모두 대표적 사례로, 이를 행동은 대리조직이 아니라 이란 군 부대가 직접 기획·지휘한 것이었다.

2024년 4월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약 300여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는 기존의 ‘대리조직을 통한 대응’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난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 이 공격과 관련해 혁명수비대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Hossein Salami)는 이란이 ‘시온주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을 수립했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떠한 공격도 자국 영토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격 직후 이란 고위 관료들은 보복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신속히 발표하며 사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란은 직접 대응의 문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전면전은 피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란의 대리조직이 무력화되면서 안보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자, 이란 강경파 엘리트는 핵무기 개발 가속을 정당화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하루 전인 6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이 NPT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며 핵 활동 확대를 선언했고, NPT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미 핵분열 물질을 확보해 수일 내 최대 15기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그림 7] 2025년 6월 ‘12일 전쟁’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출처: 연합뉴스.

이렇게 발발한 2025년 6월 ‘12일 전쟁’에서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시스템, 지휘통제 센터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가 대거 암살되고, 방공망·핵시설·탄도 미사일 인프라가 파괴됐으며, 이란의 반격·보복 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란 강경 보수파 정권은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고위 지휘관 및 핵 과학자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일반 시민 200여 명마저 사망하는 상황에서도 무력하게 대응했다.

‘12일 전쟁’은 이란-이스라엘 간 갈등에서 가장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었을 뿐 아니라,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 국민이 경험한 가장 큰 집단적 트라우마였다. ‘강요된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 수백만 명이 이번에 처음으로 ‘두 번째 강요된 전쟁’의 충격을 경험한 것이다.

전쟁 중 민간인 피해의 확대는 정권에 비판적이던 세력마저 일시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로 결집시켰지만, 이 효과는 매우 단기적이었다. 전쟁은 이미 심각했던 경제적 불황과 정치 불신을 더 악화시켰고, ‘순교자에 대한 복수’를 외치는 대이스라엘 공세는 오히려 피로감과 회의감을 증폭시켰다. 동시에 미국은 포르도 핵시설을 초대형 벙커버스터와 B-2 스텔스 폭격기로 완전히 제거하며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과 중동, 더 나아가 국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결국,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 공세 앞에서 정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엘리트 내부의 분열, 민심 이반, 시아파 종주국으로서의 권위 추락이 겹치며, 이란은 1979년 이슬람공화국 수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 진행된 이스라엘의 예방적 선제 공격 작전으로 헤즈볼라와 하마스 지도부는 제거됐고, ‘저항의 축’의 무기고 역시 초토화됐다. 이란의 무기·자금·전투원 공급 루트였던 시아파 초승달 네트워크는 붕괴했고, 이 과정에서 친이란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도 붕괴했다. 이렇듯 ‘저항의 축’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란은 중국·러시아·북한과의 반미 연대에 기대고 있지만, 핵합의 위반에 따른 유엔 제재 복원은 전략적 선택지를 더욱 제약했다.<sup>71</sup>

그 결과 이란 정권은 미국과의 핵협상 재개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에 섰고, 이는 강경파와 온건파 간 엘리트 갈등을 심화시켰다. 강경 보수파는 내부 통제 강화와 대규모 체포, 이슬람 이전 페르시아 민족주의 동원을 통해 결집을 시도했으나, 전쟁 속 무능은 오히

---

71. 장지향, 2025, “트럼프 2기 신중동 전략과 중동 안보구도의 재편,”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31.

려 국민의 분노와 수치심을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핵 프로그램·미사일·대리조직 투자에 대한 대중적 비판이 다시 고조됐으며,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될 가능성 커졌다.

## 2. 사우디아라비아: 트럼프 2기 정부 밀착으로 데탕트 주도국 부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하마스가 자신을 점점 고립시키는 역내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구도를 뒤흔들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국교 정상화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이는 하마스에게 심각한 전략적 위협으로 작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간 빅딜이 성사되고 중동에 데탕트 기류가 본격화될 경우, 이란의 후원을 받는 이슬람 급진 조직이자 국제사회 주요국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규정된 하마스는 정치적 존재 기반을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2020년에 UAE·바레인·모로코 등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해 역사적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실현했다. 수니파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 이스라엘 간의 이 전략적 연대는 시아파 맹주 이란의 역내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왕실 체제 생존 전략으로 경제 다각화와 민간부문 확대, 외자 유치를 통한 비전 2030 개혁을 추진해왔고, 이를 위해서는 역내 정세 안정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의회의 고농축 우라늄 재개 선언,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리조직 지원, 미국의 탈중동 기조 등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경계하던 요인이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수립을 조건으로 미국에 철통형 안보 보장·핵 프로그램 지원·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유화책을 요구했다. 이는 이란의 핵 위협과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면서도, 아랍 수니파 지도국으로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상징적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균형이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전략 경쟁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적이기도 했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에게 평화협정 준수를 압박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란-이란의 대리조직 간 무력 충돌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은 줄곧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요르단 등 수니파 아랍 국가들은 시아파 이란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공통의 안보 위

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이스라엘-미 중부사령부(CENTCOM)와 연대하면서 확전은 억제 됐다.

2024년 4월 이란이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드론을 직접 동시 발사했고,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미-이스라엘-아랍 간 통합 방공망이 작동해 이란발 발사체의 약 99%를 요격하며 전면전 확산을 차단했다. 이는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권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란 팽창주의 문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과 이스라엘의 CENTCOM 편입 이후 구축된 실질 안보 공조 체계가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아랍 사회 내 이스라엘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UAE·요르단 등이 이 전략적 연합을 유지한 것은, 이란 억제라는 구조적 안보 이해가 이슬람적 연대감보다 우선됐음을 의미했다.<sup>72</sup>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완전한 궤멸을 목표로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전개하면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전황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고조된 반이스라엘 여론을 경시할 수 없었고, 이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24년 11월 이슬람협력기구(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 특별 정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란,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등과 함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규탄하고 즉각 휴전을 촉구하며 가자지구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공동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미·중 경쟁이 야기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이란과 직접 대결하거나 중국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외교적 레버리지와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대리조직인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받는 직접 위협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쉽게 훼손할 수 없는 성과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산유국들은 이란이 후원하는 대리조직의 자국 석유 인프라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에게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과정에서 이란 핵심에

---

72. 정지향, 이희수, 2024, “미·이스라엘·아랍국가 간 통합 방공체계 구축의 교훈: 공통의 위협인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24.

너지 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을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확전 위험을 가장 경계했기 때문에, 미국·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란과의 데탕트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균형 외교를 수행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탈중동 기조에 대비하여 외교 다변화 전략을 확고히 했고, 그 핵심 파트너로 중국을 중시했다. 중동 내 미군 주둔 병력은 이라크 전쟁 시기인 2000년대 후반 약 18만 명 규모에서 2023년 기준 약 4만 5천 명 내외로 축소됐으며, 이는 역내 미 우방국들에게 구조적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반면 세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걸프 산유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유지하는 외교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국들의 적극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물론 경제 실용주의에 기반한 대규모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이스라엘의 공세로 인해 이란 대리조직이 약화되고 미국과의 전략 협력이 심화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즉각 휴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수행 중인 대이란 전략 리뉴얼 작전이 이란과 그 대리조직에 실질 타격을 가하기를 바랐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적 우수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미국을 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 선호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간 ‘12일 전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 환경에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도적 군사 우위에 의해 이란과 시아파 진영이 급격히 약화했고, 그 결과 새 역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미 같은 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는 결이 다른 거래 중심 대중동 전략을 선보인 상황이었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변화는 예견된 흐름이었다.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복합 작전 능력을 활용해 이란 본토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정밀 타격했고, 미국의 집중 공습 지원이 더해지며 이란의 전략자산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는 미국이 탈중동 기조와 영향력 약화 우려 속에서도 결정적 순간에는 군사 개입 의지와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전쟁 발발 직전인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다. 그는 ‘미국 경제 우선주의’ 기조하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산유국을 핵심 투자·기술 협력 파트너로 부각시키며 첨단 무기 수출 확대와 AI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걸프 오일머니의 대미 투자 협정과 초대형 무기 거래가 연달아 체결됐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가 참여한 경제·기술·안보 메가딜이 발표됐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첨단 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개혁의 전제 조건인 역내 불확실성 완화와 안보 보장에도 필수적이었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 중부사령부 통합 방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미국의 보안 요구 사항도 수용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개발사를 매개로 카타르·UAE 까지 포함한 트럼프 일가 기업과의 제휴가 확산됐다. 거래 중심 외교 기조 속에서 걸프 산유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이미 형성되어 있던 트럼프 일가-걸프 왕실 간 유대는 한층 더 강화됐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는 걸프 산유국의 외교적 제약을 완화했고, 트럼프 일가와 걸프 왕실 간 개인적 친분은 양자 간 경제·전략 협력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걸프 밀착과 이란 견제 병행 전략은 이란과 시아파 진영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수니파 걸프 국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중동 질서의 부상 을 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초밀착 외교를 통해 이른바 ‘이스라엘 패싱’ 분위기를 조성했고, 2025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서도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대신 그는 가자지구 기아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이어 7월 스코틀랜드 방문 중에는 미국과 동맹국 이 직접 구호 거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식량 지원 확대 압박을 가했다. 또 8월에는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중동 특사를 이스라엘에 파견해 휴전과 긴급 인도주의 지원 재개를 촉구했고, 9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했을 때에는 카타르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sup>73</sup>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순방의 핵심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전격적 요청을 수용해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회동한 뒤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발표했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역내 중재자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슬람주의 계열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앗삼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이 권력을 중앙집권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쿠르드계·드루즈계 등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제 도입을 지지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따라 미국에 대시

리아 제재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sup>74</sup> 이에 앞서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휴전 협상의 개최지로 리야드를 선정했다. 이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내세운 ‘긍정적 중립성(Positive Neutrality)’ 외교 노선을 높이 평가한 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분쟁의 중재자이자 외교적 조정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정으로 해석됐다.<sup>75</sup>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개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고유가 유지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의 증산 요청에 응해 여유 생산력을 활용해 추가 공급을 내놓는 유연성을 보였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확실한 안보 보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76</sup>

2025년 9월 이스라엘이 카타르 내 하마스 정치국을 공습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 주도로 열린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의안이 찬성 142표로 압도적으로

73. Julian Borger, “Donald Trump Says ‘a Lot of People Are Starving’ in Gaza and US Will Take Care of Situation,” *The Guardian* (May 16,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may/16/donald-trump-people-gaza-starving-us-will-take-care-of-situation>; Andrew MacAskill and Andrea Shalal, “Trump Says Many Are Starving in Gaza, Vows to Set Up Food Centres,” *Reuters* (July 28, 202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trump-says-many-are-starving-gaza-vows-set-up-food-centres-2025-07-28/>; Jarrett Renshaw, “Trump Hosts Qatari Prime Minister After Israeli Attack in Doha,” *Reuters* (September 13, 202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trump-hosts-qatari-prime-minister-after-israeli-attack-doha-2025-09-12/>.
74. Ahmed Asmar, “Trump Rejects Netanyahu’s Request to Keep Syria Sanctions: Report,” AA News (May 14, 2025), <https://www.aa.com.tr/en/americas/trump-rejects-netanyahu-s-request-to-keep-syria-sanctions-report/3567702>.
75. David Ottaway, “New Saudi Doctrine of ‘Positive Neutrality’ Pays Off,” Wilson Center (February 2025),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new-saudi-doctrine-positive-neutrality-pays>; Neil Quilliam, “Ukraine Talks Show Saudi Arabia Is Now a Major Diplomatic Player,” Chatham House (March 2025), <https://www.chathamhouse.org/2025/03/ukraine-talks-show-saudi-arabia-now-major-diplomatic-player>.
76. Clayton Seigle, “With Extra Oil, Trump Already Has His Big Saudi Wi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ommentary (May 12, 2025), <https://www.csis.org/analysis/extra-oil-trump-already-has-his-big-saudi-win>.

채택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군사 공세를 가했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로부터 한층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결의안은 7월 아랍연맹이 채택한 ‘뉴욕선언’을 기반으로 두 국가 해법을 재확인하고, 휴전·인도적 지원·인질 석방·하마스 통치 종식 등을 명시해 분쟁 종식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을 적극 설득하고 결의안 통과를 주도함으로써, 무슬림 세계의 외교적 구심점이자 팔레스타인 문제 핵심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했다.

[그림 8] 202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 주도로 열린 팔레스타인 문제 유엔 회의



출처: 연합뉴스.

이어 2025년 9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즉각 휴전,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을 포함한 평화안을 제시하며, 하마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새 평화 구상을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역할과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 군사 공세와 가자지구 재점령 구상은 역내 및 이슬람권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하여금 아브라함 협정 확대 및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구도 편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종전과 아브라함 협정 확대라는 외교적 성과에 높은 이해관계를 두면서도, 자국 및 걸프 산유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우회로를 활용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중재를 통한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보장과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양보 불가능한 핵심 조건으로 견지했다.<sup>77</sup>

### 3. 튀르키예: 이슬람권 영향력 확대 전략과 이에 따른 전략적 비용 증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랑스를 비롯해 주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 외교전을 벌여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유엔 결의안을 끌어냈다면 튀르키예는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무슬림 세계의 여론을 선도하려는 행보를 보여왔다.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친하마스 노선을 통해 이슬람권 내 리더십을 강화하려 했으나 국제사회 내 신뢰를 잃었다.<sup>78</sup>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 미국의 중재로 UAE·바레인·모로코 등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며 데탕트 국면이 전개됐을 당시, UAE와의 외교 단절과 대사관 폐쇄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강경한 이슬람주의적 태도는 약 20년에 걸친 장기 집권 속에서 자신을 ‘21세기 술탄’으로 연출해 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신오스만주의적 세계관과 정권 유지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신오스만주의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 회복을 목표로 자국의 역내 패권 추구를 정당화하는 이념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내 정치 위기 국면마다 튀르키예 민족주의·신오스만주의·유라시아주의 등 팽창주의 외교 프레임을 동원해 지지층 결집과 정권 안정을 도모

77. 장지향, 2025, “트럼프 2기 신중동 전략과 중동 안보구도의 재편,”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31.

78. Aslı Aydınlaşbaş, “NATO, Gaza, and the future of US-Turkish relation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ebruary 5, 2024), <https://ecfr.eu/article/nato-gaza-and-the-future-of-us-turkish-relations/>; Yusuf Can and Seda Güneş, “Turkey-Israel Relations After October 7: Layers of Complexity and Posturing,” Wilson Center (October 17, 2024),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turkey-israel-relations-after-october-7-layers-complexity-and-posturing>.

해왔다. 그 결과 튀르키예는 인권·민주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미국·유럽과는 거리를 두고, 러시아·이란·중국 등 비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하는 세력과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해왔다.<sup>79</sup>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튀르키예는, 2022년 12년 만에 복원된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양측에 자제와 즉각적 휴전을 촉구했다. 양국 관계는 2010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마비 마르마라호’ 사건으로 단절됐고, 이후 2018년 미국의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 튀르키예의 하마스 정치국 지원 문제 등으로 갈등이 누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란의 군사 팽창 견제라는 공통된 전략적 이해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협력 구상이 맞물리면서 2022년 이츠하크 헤르초그(Yitzhak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의 앙카라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대사를 복원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같은 시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관계 회복에 나섰다. 이는 2023년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경제난 속 정권 재창출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선택한 실용주의적 외교 전환이었다. 2022년 2월 그는 9년 만의 UAE 방문을 통해 투자 유치를 모색했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재판을 사우디 법원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두 달 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앙카라 방문에서 양국은 투자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주이스라엘 대사를 4년 만에 재임명하며 대사급 관계를 복원했고, 2013년 쿠데타로 무슬림형제단 정부를 축출한 압델 파타흐 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의 관계 정상화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sup>80</sup>

그러나 전쟁이 본격화되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튀르키예는 친하마스·반이스라엘 노선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하마스를 ‘해방 전사’,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로 규정하며 무슬림 세계에서의 정치·도덕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빗대어 국제사회의 즉각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부상한 하마스 대원 약 1,000명을 자국으로 이송

79. 정지향, 2023, 『최소한의 중동 수업』, 서울: 시공사.

80. Ibid.

해 치료를 제공했으며, 상당수가 전투원으로 확인됐음에도 ‘인도주의적 치료’라는 명분으로 신원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하마스 정치국은 2012년 시리아 내전 이후 도하를 공식 본부이자 재정 거점으로, 이스탄불을 로비·정보 허브로 활용해왔다. 이스마일 하니예, 살레 알아루리, 할릴 알하야 등 핵심 인물들은 이스탄불 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사실상 용인하며 하마스를 테러조직이 아닌 합법 정치세력으로 취급해왔다. 현재 튀르키예, 카타르, 이란, 러시아, 중국 같은 하마스를 ‘저항운동’ 또는 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은 결국 2023년 11월 튀르키예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소환하며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4년 들어서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적 무역 중단, 이스라엘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시행했고, 하마스 정치국 인사들의 체류를 유지하며 이슬람권 내 대표적 하마스 옹호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하자 이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가 애도일을 선포했으며,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해 하마스와의 연대를 과시했다. 이는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정당한 저항 세력’으로 인정하는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 서방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킨 조치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하마스 행보는, 과거 ‘균형외교’ 중재자로 평가받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외교적 존재감을 극대화했던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튀르키예는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주선하고 곧이어 양측의 5차 평화협상을 개최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이후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과 각각 정례 회담을 이어가며 양측 모두의 신뢰를 유지한 유일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공급하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침공 직후 유엔 긴급총회에서 러시아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국제규범 준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주도한 대러 제재 체제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나토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해 서방과의 전략적 균열을 확인시켰다. 즉, 튀르키예는 규범·억제·전략적 자율 사이

에서 균형을 조정하는 절충 노선을 견지해왔다.

2024년 2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1년 8개월의 협상 끝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한 결정 역시 이러한 외교적 지렛대 전략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쿠르드계 반튀르키예 활동 억제와 튀르키예의 EU 가입 지지에 협력하기로 했고, 미국은 F-16 전투기 판매 승인을 통해 이를 보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처럼 나토 내에서 ‘완전한 서방 진영 참여도, 완전한 이탈도 아닌’ 회색지대를 유지함으로써, 나토 동맹국들조차 튀르키예를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협상력을 꾸준히 활용해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간 강대국 경쟁 속에서 균형 지점을 찾아 자국의 외교 공간을 최대화하는 ‘외줄타기 전략’을 능숙하게 구사해온 지도자로 평가받아왔다.<sup>81</sup> 그러나 2024년 5월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며 사실상 장기집권 체제를 굳힌 그는, 2003년 총리 취임 이후 20년 넘게 권력을 장악해왔고 2014년 대통령으로 전환한 뒤 연속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프리덤하우스 기준 2025년 튀르키예는 민주주의 지수 100점 중 33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며, 이 체제하에서 권력은 공공의 이익보다 측근 네트워크 유지와 충성 보상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 외교 행보 역시 국가 전략이라기보다 정권 생존과 엘리트 연합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sup>82</sup>

이 맥락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골적 친하마스 행보는 그가 유지해온 ‘균형외교’ 자체를 약화시키는 선택으로 보인다. 2024년 5월과 7월 그는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하마스와 파타흐 대표단을 비공개로 초청해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구성을 중재하려 했으나, 하마스가 참여 불가결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즉 에르도안의 이슬람주의 연대 전략은 내부 결집에는 일정 효과를 낳았지만, 중재자로서의 국제 신뢰와 외교적 영향

81. Marc Dubois, “Turkey Faces Limits to Its Balancing Act in Diplomacy,” *Le Monde* (May 22, 2025), [https://www.lemonde.fr/en/opinion/article/2025/05/22/turkey-faces-limits-to-its-balancing-act-in-diplomacy\\_6741541\\_23.html#](https://www.lemonde.fr/en/opinion/article/2025/05/22/turkey-faces-limits-to-its-balancing-act-in-diplomacy_6741541_23.html#); Selin Kaya, “Türkiye’s Balancing Act: How Erdogan Navigates Between NATO, Russia and the Gulf,” Atlas Institute (July 31, 2025), <https://atlasinstitute.org/turkiyes-balancing-act-how-erdogan-navigates-between-nato-russia-and-the-gulf/>.

82. 장지향, 2025, “튀르키예의 글로벌사우스 인식과 전략,” 『국제정치변동과 글로벌사우스의 부상』, 사회평론아카데미; Freedom House, 2025, *Freedom in the World 2025: The Uphill Battle to Safeguard Rights*,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25/uphill-battle-to-safeguard-rights>.

력에는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튀르키예의 노선은 이슬람권 내 다수 주요국과 뚜렷한 괴리를 보였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은 이를 즉각 규탄했으나, 튀르키예는 하마스의 행위를 ‘정당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서안지구의 합법 정부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관계도 악화됐다. 파타흐는 튀르키예의 노선이 팔레스타인 내부 통합 노력과 합법 정부로서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며, 튀르키예가 중재자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정치 후원자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sup>83</sup> 나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하마스를 공개 비판하지 않은 국가는 튀르키예가 유일했다는 점에서 그 이탈은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친하마스 노선 강화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내 정치 위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선택한 선동적 외교 행보로 해석된다. 2024년 3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에 패배했고, 특히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핵심 대도시를 상실하면서 중대한 정치적 경고음을 들었다. 이스탄불에서는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 시장이 여당 후보를 10%p 이상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고, CHP는 전국 81개 광역지자체 중 35곳을 차지하며 지방 권력구조를 재편했다.

여기에 이슬람주의 계열 신복지당의 제3당 부상은 정의개발당의 전통적 보수·종교 지지층을 잠식하며 보수 진영 내 분열을 심화시켰다. 네지메tin 에르바칸(Necmettin Erbakan) 전 총리의 아들 파티흐 에르바칸(Fatih Erbakan)이 창당한 신복지당은 도덕·사회정의 담론과 반금융·친서민 정책을 내세워 경제난에 피로감을 느낀 보수층을 흡수했고, 외교적으로는 친팔레스타인-반이스라엘 노선을 강하게 주장해 에르도안 노선과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AKP에 대한 대체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 이스탄불 시장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경쟁자로 부상하자 본격적 정치적 압박에 나섰다. 2025년 3월 검찰

---

83. Aslı Aydın Taşbaş, “Turkey Is Not an Actor in the Gaza Conflict,” Arab Center Washington DC (August 2024), <https://arabcenterdc.org/resource/turkey-is-not-an-actor-in-the-gaza-conflict/>; Galip Dalay, “Understanding Turkey’s Response to the Israel-Gaza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December 2023), <https://www.brookings.edu/articles/understanding-turkeys-response-to-the-israel-gaza-crisis/>.

은 이마모을루 시장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하고 뇌물을 수수하며 입찰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체포·기소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검찰총장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으며, 리라화 가치는 12.7%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됐다.<sup>84</sup>

이처럼 국내 정치·경제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12일 만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자, 튀르키예는 전략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대이스라엘 관계 복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전쟁은 이란과 시아파 진영의 역내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이스라엘과 걸프 산유국 중심의 새 안보 구도가 급부상하는 분수령이 됐다. 이에 튀르키예는 7월 이스라엘과 시리아 내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직통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으며,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바库에서 수주간 비공개 협상을 중재한 결과였다.<sup>85</sup>

튀르키예는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 북부 쿠르드계 민병대의 독자적 세력화를 저지하고 31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 송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알아사드 정권 이후 과도정부 수반인 알샤라 대통령을 지원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쿠르드·드루즈 세력의 자치권 보장을 지지하며, 이란과 ‘저항의 축’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시리아 내 친이란 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타격해왔다. 두 국가는 서로 다른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이란 억제라는 구조적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공유됐다.<sup>86</sup>

여기에 7월 아랍연맹이 채택한 ‘뉴욕선언’에서 두 국가 해법과 하마스 통치 종식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튀르키예의 외교적 입지는 더 좁아졌다.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20개 조

84. Ezgi Erkoyun and Canan Sevgili, “Istanbul Mayor Imamoglu Is Arrested. Turkish Lira Plunges to Record Low,” Reuters (March 20, 202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stanbul-mayor-imamoglu-arrested-turkish-lira-plunges-record-low-2025-03-20/>.

85. 장지향, 2025, “시리아 세습 독재의 몰락과 이슬람주의 과도정부의 출범: 분석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18.

86. Sinem Adar, “Turkey’s Syria Challenge,” CSIS Babel: Translating the Middle East (January 28, 2025),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podcasts/babel-translating-middle-east/turkeys-syria-challenge>; Navvar Şaban, “Israel’s Response to Iran in Syria: Choosing Between Escalation and Accommodation,” Middle East Institute (November 17, 2023), <https://www.mei.edu/publications/israels-response-iran-syria-choosing-between-escalation-and-accommodation-0>.

항 평화안을 제시하기 직전 아랍·이슬람권 지도자들과 진행한 비공식 조율에서도 하마스의 직접 통치 배제와 무장 해제 원칙이 합의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하마스를 배제한 해법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전후 국제 지원 확보와 외교적 고립 방지를 위해 하마스의 직접 통치 배제, 무장 해제, 기술관료 중심 과도정부 구성에 조건부 동의하는 절충적 태도로 선회했다.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신중동 질서가 부상하는 가운데, 튀르키예는 더 이상 공개적 친하마스 노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 V.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동 전략 변화

### 1. 바이든 정부: 휴전 반대에서 평화 구상으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하마스의 군사적 무력화를 전폭 지지했다. 미국은 하마스가 휴전을 틈타 전력을 재편할 위험을 이유로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에 세 차례 반대했고,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인도주의적 참사와 미국의 도덕적 정당성 훼손이 심각해지자, 2024년 3월 바이든 정부는 정책 노선을 전환했다. 즉각 휴전, 인도주의 지원 확대, ‘두 국가 해법’을 중심으로 한 전후 평화 구상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미국 내 아랍계·무슬림·청년층의 반발, 중동에서의 반미 여론 확산,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노선으로 인한 미·이스라엘 관계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sup>87</sup>

바이든 정부는 인질-수감자 교환, 하마스 지도부 축출 및 무장 해제 등을 포함한 단계적 휴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아랍국가와 연계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지원 구상을 병행했다. 그 결과 2024년 3월 26일 전쟁 발발 후 첫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고, 미국은 공중 구호품 투하 및 임시 부두 건설 등 가자지구 인도주의 작전을 본격화했다. 또 바이든 정부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행정 통합을 통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사실상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4년 4월 인권침해 혐의가 제기된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고, 5월에는 라파 지상작전 강행 시 무기 지원 중단을 경고하며 일부 탄약 및 정밀폭탄 인도 절차를 즉각 보류했다. 이 압박은 이스라엘 지도부 교체론으로 구체화됐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개편을 유도한 데 이어, 이스라엘에도 조기 총선 실시를 통한 정권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요 경쟁자인 베니 간츠(Benny Gantz)를 백악관으

---

87. 정지향, 강충구, 2025,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식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 전망,”  
아산리포트, 아산정책연구원.

로 초청해,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와 전후 행정체제 설계에 대한 협력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가 네타냐후 총리를 “평화의 장애물”로 비판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네타냐후 분리 전략’은 사실상 공식화됐다.<sup>88</sup> 이어 바이든 정부는 간츠 대표에게 9월 조기 총선 실시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정치의 세대 교체와 정책 전환을 유도했다.<sup>89</sup>

이처럼 미국이 입장은 급선회한 배경에는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확대에 따른 국내외 여론의 급격한 악화가 자리한다. 2023년 11월에는 미 국무부 직원 100여 명이 정부의 이스라엘 전폭 지원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내부 서한에 집단 서명했고, 2024년 1월 아랍센터 워싱턴 DC의 조사에서는 아랍 16개국 응답자 중 94%가 미국의 전쟁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sup>90</sup> 2024년 3월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2020년 바이든 당선을 뒷받침했던 젊은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층이 급격히 이탈 조짐을 보였다. 이들은 컬럼비아대·미시간대·UCLA 등을 포함한 전국 50여 개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조직하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sup>91</sup>

소수 인종으로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구성해온 아랍계·무슬림 유권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폭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시간·미네소타·애리조나·위스콘신·조지

88. Josef Federman, “Top Democrat Schumer Calls for New Elections in Israel, Saying Netanyahu Is an Obstacle to Peace,” AP News (March 15, 2024), <https://apnews.com/article/schumer-netanyahu-israel-palestinians-elections-1ebf21e4c9c0f6f42478bb26e1db7a9b>.

89. 하지만, 4월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자 미 하원은 6개월째 표류하던 26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정부의 네타냐후 압박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90. Arab Center Washington DC, “The Arab Public Opinion Survey 2024” (February 2024), <https://arabcenterdc.org/resource/arab-public-opinion-about-israels-war-on-gaza/>; Maria Abi-Habib, Michael Crowley, and Edward Wong, “More Than 100 U.S. Officials Sign Dissent Cable on Biden’s Israel Policy,”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4, 2023), <https://www.nytimes.com/2023/11/14/us/politics/israel-biden-letter-gaza-cease-fire.html>.

91. Justin Nortey, “The Biden Administration’s Response to the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Pew Research Center (December 8, 2023),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3/12/08/the-biden-administrations-response-to-the-war-between-israel-and-hamas/>; Justin Nortey and Aidan Connaughton, “Younger Americans Stand Out in Their Views of the Israel-Hamas War,” Pew Research Center (April 2, 2024),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4/02/youngers-stand-out-in-their-views-of-the-israel-hamas-war/>.

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바이든 낙선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 7개 주는 모두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었다. 2024년 초에는 여러 아랍계·무슬림 단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불신임 투표’ 캠페인을 조직하며 중동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집단적으로 드러냈다.<sup>92</sup> 실제 국정운영 부문별 여론에서도 외교 및 중동 대응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 3월 갤럽 조사에서 환경(43%)·에너지(38%) 정책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대외정책은 3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대응은 2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sup>93</sup>

## 2. 트럼프 2기 정부: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주도의 질서 재편과 대이란 공세

2024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후보는 중동 문제에 대해 구체적 구상이나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이 집권했다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화 한 통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의 메시지 중심 접근을 취했다. 공화당의 2024년 공식 선거 공약 역시 “중동 평화를 회복하겠다”,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9월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민주당의 네타냐후 압박 기조를 비판하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강경한 친이스라엘 태도를 부각했다.<sup>94</sup>

11월 8일 트럼프 승리가 확정되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위대한 귀환”이라며 환영했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트럼프와의 전략적 공조 심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취임 직후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전격 발

92. Nadda Osman, “Which Swing States Have Key Arab-American Voter Influence?” *The New Arab* (November 5, 2024), <https://www.newarab.com/news/which-swing-states-have-key-arab-american-voter-influence>; Tom Perkins, “They Blew It’: Democrats Lost 22,000 Votes in Michigan’s Heavily Arab-American Cities,” *The Guardian* (November 9, 2024),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4/nov/09/democrats-lose-michigan-arab-american-voters>.

93. Lydia Saad, “Biden’s Job Rating Steady; Middle East Approval at 27%,” *Gallup News* (March 22, 2024), <https://news.gallup.com/poll/642620/biden-job-rating-steady-middle-east-approval.aspx>.

94. “Republican Party Platform 2024,”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b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July 8, 2024),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24-republican-party-platform>; Ron Kampeas, “At Debate, Harris Calls for Gaza War to End Immediately — and Trump Says Israel Will Not Exist if He Loses,” *Jewish Telegraphic Agency* (September 10, 2024), <https://www.jta.org/2024/09/10/politics/at-debate-harris-calls-for-gaza-war-to-end-immediately-and-trump-says-israel-will-not-exist-if-he-loses>.

표해 실제 집행 여부와 별개로 새로운 외교 환경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신호를 보냈다.<sup>95</sup>

2025년 1월 23일 트럼프 2기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즉각 휴전을 압박하며 적대행위 중단, 인질 교환,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은 ① 이스라엘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00명 교환, 인도주의 물자 수송 및 안전구역 설치, 국제기구 활동 보장 ②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③ 하마스 무장해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즉각적 전면 철수를 요구했고,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파는 하마스 지도부의 추방 없는 합의 불가를 고수하며 협상이 교착됐다. 결국 3월 초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첫 휴전 중재 시도는 무산됐다.

이어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번영을 통한 평화’ 브리핑에서 사우디아라비아·UAE·이스라엘 등이 참여하는 홍해-지중해 경제 회랑, 이른바 ‘중동 리비에라’ 구상을 제안하며 관광·에너지·물류·디지털 산업을 연계한 평화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역량 강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두 번째 임기 첫 해외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를 방문해 총 3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제·기술·안보 패키지를 체결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걸프 국가의 대미 투자를 미국 내 AI·첨단 제조·방위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개선, 에너지 패권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며 전략적 연계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자본의 미국 내 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약속했고, 바이든 정부 시기에 시행된 첨단 반도체 및 주요 무기체계 수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sup>96</sup> 이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 중심 외교와 미-걸프 전략 동맹 강화를 상징했다.

95. “‘Yesssss’: Israel Reacts to Donald Trump’s Return to Power in US Election,” *Al Jazeera* (November 8, 2024),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4/11/8/yesssss-israel-reacts-to-donald-trumps-return-to-power-in-us-election>; “HRH Crown Prince Congratulates Donald Trump on Winning U.S. Presidential Election,” *Saudi Press Agency* (November 6, 2024), <https://www.spa.gov.sa/en/N2202140>.

이처럼 트럼프 2기 정부가 결프 산유국과의 초밀착 외교에 집중하자,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적으로 뒤로 미루는 이른바 ‘이스라엘 패싱’ 논의가 제기됐다.<sup>97</sup>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이란과 새로운 핵 협상을 개시해 다섯 차례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의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하메네이 최고 종교지도자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등 유화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트럼프 정부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전환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승인했다. 특히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초대형 병커버스터와 B-2 스텔스 폭격기 투입 작전은 미국이 직접 개입해 이란의 전략 자산을 무력화한 전례 없는 조치였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농축 활동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자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 농축권은 주권 사항이라며 강경히 반발했고, 이에 따라 미·이란 핵 협상은 급속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대이란 선제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자,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를 이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습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 단독 타격으로는 핵시설의 약 20%만 파괴되는 데 그쳤고, 이스라엘의 지속적 후속 타격 요청에 따라 미국은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시행해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하는 고강도 공습에 직접 나섰다.

당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중동 군사 개입을 자제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요인은 이스라엘의 선제 작전으로 방공망·정보·지휘 체계가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되면서 미국의 군사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었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시아파 맹주 이란의 군사

96. Karen Freifeld and Arsheeya Bajwa, “Trump administration to rescind and replace Biden-era global AI chip export curbs,” *Reuters* (May 8, 2025), <https://www.reuters.com/business/trump-administration-will-rescind-biden-era-ai-chip-export-curbs-bloomberg-news-2025-05-07/>; Liza Lin, Amrith Ramkumar, and Corrie Driebusch, “U.S. to Overhaul Curbs on AI Chip Exports After Industry Backlash,” *The Wall Street Journal* (May 7, 2025), <https://www.wsj.com/tech/ai-chip-exports-overhaul-0518a821>.

97. Samia Nakhoul and James Mackenzie, “Trump’s Gulf Tour Reshapes Middle East Diplomatic Map,” *Reuters* (May 19, 202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trumps-gulf-tour-reshapes-middle-east-diplomatic-map-2025-05-18/>; Hélène Sallon, “Trump’s Gulf Outreach Sidelines Israel’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Le Monde* (May 23, 2025), [https://www.lemonde.fr/en/opinion/article/2025/05/23/trump-s-gulf-outreach-sidelines-israel-s-influence-in-the-middle-east\\_6741575\\_23.html](https://www.lemonde.fr/en/opinion/article/2025/05/23/trump-s-gulf-outreach-sidelines-israel-s-influence-in-the-middle-east_6741575_23.html).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수니파 걸프 산유국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병행했다. 미국의 직접 개입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적 해결을 거부할 경우 재공격 가능성을 공개 경고하며 강경파 지도부를 겨냥해 사실상 정권 교체까지 시사했다. 그 결과 공습 이틀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전격 발표되며, 트럼프 2기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트럼프 대통령과 2025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출처: 연합뉴스.

한편 중동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해온 중국은 이번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소극적 방관자로 남으며 역내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세에 대해 ‘확산 반대’ 수준의 원론적 우려 표명에 그쳤고, 미국과 달리 분쟁 억제를 위한 실질적 외교·군사적 개입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2024년 초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항로를 위협했을 때에도 중국은 후티 반군의 후원국인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러시아와 함께 자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실상 양자 거래에 나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sup>98</sup> 이로써

98. Aadil Brar, “Houthi Attack Chinese Ship Despite Deal Not To,” *Newsweek* (March 25, 2024), <https://www.newsweek.com/china-red-sea-houthi-ship-attack-deal-russia-1882933>.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교역 및 외교 다변화 파트너임에도, 결정적 안보 보장과 군사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구조적 인식이 강화됐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걸프 밀착과 대이란 공세 병행 전략은 이란과 시아파 진영의 역내 영향력을 전례 없이 약화시켰다. 그 연장선에서 9월 27일 트럼프 정부는 즉각 휴전,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하마스 무장해제 등을 포함한 이른바 ‘가자지구 20개 조항 평화안’을 제시했다. 다만 팔레스타인 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가 부재하고, 인도주의보다 안보·통제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장기 교착을 깨고 이슬람권의 일정한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해당 평화안은 외교적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sup>99</sup>

이 평화안에서 트럼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국의 중재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며, 종전·아브라함 협정 확대·걸프국 재정 지원을 통한 가자지구 재건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UAE·바레인·모로코 등 아브라함 협정 체결국은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조용한 교류를 유지해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역시 미 CENTCOM 통합 방위체계를 통해 이스라엘과 실질적 안보 협력을 지속해왔다. 다만, 이스라엘의 장기 군사작전에 대한 국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한 상황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외교 해법이 마련돼야만 수니파 아랍국-이스라엘 간 데탕트가 다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지도자인 만큼, 2025년 9월

99. “The White House’s Plan for Gaza Deserves Praise,” *The Economist* (October 1, 2025),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5/10/01/the-white-houses-plan-for-gaza-deserves-praise>; Marwan Bishara, “Hamas Agrees to Parts of Trump’s Gaza Plan but Calls for More Talks,” *Al Jazeera* (October 3,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0/3/hamas-says-it-agrees-to-parts-of-trumps-gaza-plan-but-more-talks-needed>; Karen DeYoung, Souad Mekhennet, and Adam Taylor, “Trump’s Gaza Peace Proposal Draws Mixed Reactions from Allies and Critics,”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7, 2025),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5/09/27/trump-21-point-gaza-peace-plan/>; Hugh Lovat and Muhammad Shehada, “An Imperfect Promise: Where Trump’s Peace Plan for Gaza Falls Short,”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ctober 3, 2025), <https://ecfr.eu/article/an-imperfect-promise-where-trumps-peace-plan-for-gaza-falls-short/>.

즉각 휴전·인질 석방을 포함한 평화안을 직접 제시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는 이스라엘 내부 정치의 제약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약화라는 구조적 조건을 활용하여 걸프 산유국-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신중동 안보 구도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전개했다.

## VI. 나가며: 한국의 대중동 정책 제언

2025년 하반기 중동의 역학 구도와 안보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특히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며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간의 ‘12일 전쟁’이 이스라엘의 압도적 승리로 종결되면서 정세는 결정적 변곡점을 맞았다. 이스라엘의 공세적 ‘갈등 제거’ 전략과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재개입 기조는 이란과 시아파 진영의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그 결과 역내 주도권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걸프 산유국을 핵심 축으로 한 수니파 질서가 부상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알샤라 과도정부가 출범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며, 이스라엘과도 대화를 재개하는 등 지역 질서 전반이 재조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27일 ‘가자지구 평화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는 발표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 그리고 주요 이슬람권 및 유럽 국가들과 조율을 거쳐 외교적 공감대를 확보했고, 그 결과 10월 8일 이집트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안 1단계인 휴전과 인질 석방에 합의했다. 이로써 장기 교착 상태였던 가자 전선은 부분적이나마 안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1단계 휴전 합의는 상호 신뢰 회복이 아닌 양측의 외교적 성과 필요에 기반한 전술적 협력에 가깝다. 무장해제와 철군이라는 핵심 쟁점이 본격화되는 2·3단계로 접어들수록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협력보다 상호 불신이 지배하는 ‘죄수의 딜레마’ 구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 이전 철군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하마스는 철군 전 무장해제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마스 내부에서는 카타르 기반 정치국과 가자지구 강경파 간 노선 갈등이,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암바스 수반의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통제력 한계를 드러냈으나, 하마스가 통치 정통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집트와 아랍연맹 주도 재건 계획의 유일한 협상 파트너로 부상할 여지는 남아 있다. 단기간 내 하마스를 대체할 통합적 대안 세력이 부상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반복되는 군사 충돌과 가자지구의 통치 실패, 민간 피해에 대한 책임론 확산은 하마스의 대중적 정당성과 동원 능력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하마스는 생존은 유지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정치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전후 질서는 협력적 평화가 아닌 불안정한 균형으로 수렴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통제 유지에, 하마스는 조직 재건에, PA는 정통성 회복에 각각 주력하면서 제한적 군사 압박과 협상 지연이 병행되는 장기 교착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sup>100</sup>

한편 중동 내 미국 영향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던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전쟁 국면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역량이 분산된 가운데 중동 개입 여력이 제한됐고, 중국 역시 후티 사태 및 이란 공세 국면에서 중재·억지·군사 지원 등 실질적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강도 높은 군사 억지, 외교 조율, 연합 방공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동 안보의 ‘최종 보증자’ 역할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걸프 산유국들은 잠시 완화됐던 대미 안보 의존을 다시 재인식하게 됐으며, 동시에 약화된 이란 및 그 잔여 대리조직의 지속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역량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은 대체 가능한 공급선, 신뢰 가능한 운영 역량, 비교적 낮은 정치 리스크라는 조건을 갖춘 전략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걸프-한국 간 방산 협력은 향후 역내 안보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국은 이미 걸프 국가들의 핵심 에너지 공급 파트너이자 주요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산·원전·스마트시티 등 기술 협력을 통해 이들의 경제·안보 현대화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UAE·카타르 등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무기체계 운용 능력을 현장에서 입증하며 방산 외교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체결된 한-GCC 자유무역협정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방산 분야 관세 철폐가 예고되면서 향후 교역·기술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다만 효과적 중동 정책은 국가별 위협 인식·정치 체제·경제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이 취할 전략적 방향은 대체로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방산 협력 심화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 걸프 국가들의 자주국방 수요,

---

100. 장지향, 2025, “중동, 불안한 휴전에서 불확실한 균형으로,” 2026 아산 국제정세전망,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의 전략적 조정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이라는 조건이 맞물리는 분야다. 둘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 가자지구 및 주변 지역의 전후 재건 참여는 한국이 보유한 공공 인프라·에너지·도시개발 역량을 통해 외교적 존재감과 신뢰를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처럼 한국과 걸프 국가들의 이해가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단순한 수출·투자 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제도적·안보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sup>101</sup>

다음으로 가자지구 전후 재건 참여는 한국과 중동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리더십을 공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존의 ‘두 국가 해법’ 지지 기조를 유지하며, 팔레스타인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 재건·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현안에 직접 개입을 피하면서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존 여건과 자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두 국가 해법’의 기반을 지지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참여를 미국 주도 ‘가자지구 평화안’ 이행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스라엘·걸프·유럽과의 다자 협력과 연계한다면, 미국과의 전략 공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기여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협력국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중견국이자 신뢰받는 파트너로 부상시키는 외교적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은 실제로 전쟁 이후 중동 내 인도 지원 확대를 시도해왔다. 가자지구에 대한 200만 달러 긴급 지원(전쟁 직후), 800만 달러 추가 지원(2024년 4월), 그리고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에 따른 레바논 지원 300만 달러 등은 그 사례다. 그러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으로 2023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국민총소득 대비 0.17%로 회원국 평균(0.37%)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제도적 기반과 재정 여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축소하고 다수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재건 재원을 직접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가자지구 재건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우방국의 재정 기여 확대를 기대하

---

101. 정지향, “2025년 한국의 대(對)중동정책 제언: 방산·원전 협력과 전후 재건 기여,”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10.

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자지구 인도 지원은 걸프 산유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란·미국 모두가 외교적 정당성을 위해 중시하는 핵심 의제다. 따라서 한국은 재건 지원과 평화 구축 활동에서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장하되, 지원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실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 전략, 예산,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때 한국은 중동에서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책임 있는 국제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 후 2년 무엇이, 어떻게, 왜 변했나

발행일 2026년 1월

지은이 장지향, 성일광, 강충구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mailto: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http://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6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333-5 95340 (PDF)

